



# “위기서 기회 찾은 반도체 산업… 실적 반등 총공세”

‘취임 2년차’ 각오 다지는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반도체 업황 불황·日 수출 규제 악재 속 경쟁력 강화 대응  
세계 최초 128단 4D 낸드 개발 등 시황 회복기 준비 마쳐

이석희(사진) SK하이닉스 사장이 내년 도 실적 반등이란 특명을 받았다. 취임 첫째 반도체 불황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 사장은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맞춰 회사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는 각오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인사가 다음 달 5일께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의 유임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데다, 올해 한일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불황기 속에서도 차세대 메모리 제

품 개발과 용인 클러스터 확보 등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시황회복기를 착실히 준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장은 취임 첫해인 올 한 해 위기의 연속이었다. 최근 몇 년간 슈퍼호황기를 맞았던 반도체 업황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악화했고,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한 기저효과까지 작용하면서 눈에 보이는 실적 부진도 컸다.

게다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악재도 터졌다. 이 사장은 7월 직접 일본 출장길에 올라 현지 거래처 등을 돌며 소재 수급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또 반도체 장비와 소



재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육성 노력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그는 위기 속에도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기술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한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

단이다. 사장 취임 후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 이유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고객사들의 구매 의사 감소 등 반도체 시장이 침체했음에도, SK하이닉스는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6세대 128단 4D 낸드플래시를 개발·양산했다. 작년 10월 96단 4D 낸드 개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128단 4D 낸드가 도입된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기술 개발에 집중해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원가 절감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기가 회복될 때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품 중심 사업 체계’로 변화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이어왔다.

이 사장은 뉴스를 통해 “과거에는 특

정 장비(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과 제품 공급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고객마다 다양한 성능과 전력 특성을 요구하는 파생 제품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런 변화를 ‘제품 중심 사업 체계’로 정의하고, 각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까지 이에 맞게 바뀌 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고객들은 물론 내부 구성원과 소통도 크게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임직원을 만났다. 생방송에는 임직원 2000여 명이 접속해 1만 건에 달하는 댓글을 달며 소통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다져놓은 기반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올해 대비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류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허인철 “미네랄 많은 제주용암수… 경쟁 상대는 에비앙”

〈오리온 부회장〉

오리온 첫 음료 브랜드 “글로벌 시장 공략… 내년 中 진출”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이 26일 서울시 강남구 마켓오 도곡점에서 ‘오리온 제주용암수’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출시하는 용암수는 오리온 음료 사업의 밑알이 될 것이다. 생수로 2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프랑스 다농그룹 ‘에비앙’과 경쟁하는 것이 목표다.”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은 26일 열린 ‘오리온 제주용암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오리온이 내놓은 첫 음료 브랜드다. 제품 라인업은 △530ml(1000원) △2l(가격 미정)로 구성됐다. 오리온은 이를 통해 제주삼다수·백산수·아이스시 등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미네랄워터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허 부회장은 “3년 6개월 전 제주용암수의 존재를 알게 됐고 6개월의 노력 끝에 업체(제주용암수)를 인수해 설비 제작 등 제주용암수 제조 공정을 시작했다”며 “3년간 오리온 전문가들이 외부 전문가들과 힘을 합해 몸에 좋은,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풍부한 미네랄 함량’을 제주용암수의 특징으로 꼽았다. 허 부회장은 “용암청에 내장돼 있던 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며 “프랑스 에비앙의 미네랄 함량이 290mg으로(시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우리는 미네랄 함량을 300mg으로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국내 시판 중인 일반 생수와 비교하면 칼슘은 13배,

칼륨은 7배, 마그네슘은 2배 많다.

오리온은 영양뿐 아니라 맛에도 집중했다. 미네랄 블렌딩 및 물맛과 관련해서는 미네랄 추출기술 권위자인 일본의 우콘 박사, 국가대표 워터소물리에 고재운 교수 등이 참여했다.

허 부회장은 “물맛을 좌우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분리 추출해 청량감을 더하는 적정 비율을 찾아냈다”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면서도 청량한, 그런 물맛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오리온은 오리온 제주용암수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허 부회장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물을 개발한 만큼 국내 판매 이외에 중국과 베

트남 등 해외 수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제주용암수의) 다른 음료로의 확장성도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크나큰 그림을 펼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우선 오리온은 오랜 기간 다져온 영업망과 마케팅 노하우 등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지난날 아름다운 디자인, 미네랄워터로서의 강점 등 제품력을 인정받아 중국 2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국 진출 이후에는 베트남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오리온은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오리온이 제과를 넘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네랄워터’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의하고 청정 제주 이미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사랑으로

호수공원과 16개 공공기관으로 빛나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전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 거실, 각 방 총 5대)  
무상제공

중도금  
무이자

<http://najuaesiang.sarangeuro.co.kr>

## 신규 선착순 분양 중

광주전남혁신도시 B1 블럭  
이노 시티 애시앙 (4-bay) 일반분양!



생활 혁신!

중앙호수공원,  
나주호 관광단지 등  
자연환경 탁월



교통 혁신!

호남고속도로,  
KTX(송정역, 광주공항 등)  
광역교통망



교육 혁신!

한전공대(예정)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  
초·중·고 인접



미래 혁신!

16개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차 지붕부

84㎡A/B/C 총 1,478세대

모델하우스

061)337-4025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광주전남혁신도시 B1블럭 이노 시티 애시앙 · 공공위탁: 전남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번지 · 공공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층, 지상 13~20층 23개동, 총 1,478세대 및 부대·편리시설 · 분양대금관리: 시행사 자체관리 · 시행 및 시공: (주) 부영주택 ※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긱발’ 떨어지기 전에… 옷 벗으면 반년 內 ‘초고속 영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금융업계 고위직 재취업 기간이 평균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퇴직자 절반가량은 1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전에 이미 재취업 대상 금융회사에 정해졌다는 의미다. 금융시장에선 이들의 초고속 재취업을 놓고 ‘금피아 특혜취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의 역량이 ‘고액 연봉’을 대가로 퇴직 후 사적인 업무에 활용되는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를 역대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업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는 것”이라며 “금피아 재취업은 공정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퇴직자 6개월 만에 초고속 재취업… 고액 연봉은 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이 올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재취업한 금융위·금감원 퇴직자는 총 74명이다. 이들 중 26명(35%)은 재취업까지 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56명(75%)은 재취업까지 6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특히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의 65%인 48명은 관련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금융업계로 취업한 이들 중 41%에 해당하는 20명이 한 달 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어 75%에 해당하는 36명의 재취업 기간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특정 기관의 원장이나 전무이사, 연구위원이 되거나 금융기업의 감사위원, 상무, 감독이사 등 주로 고위직에 이들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유관업계로 취업한 금융위 퇴직자는 2명으로 올해 4월과 7월 각각 금융결제원 원장과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1개월, 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금융위 퇴직자 1명이 퇴직 후 8개월 만에 KB캐피탈 상근감사위원으

로, 2017년에는 금융위 퇴직자 2명이 같은 해 8·9월 각각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퇴직 후, 새 동지를 틀기까지 2개월이면 충분했다.

금융위 퇴직자는 유관기관에도 손을 뻗었다. 금융위 퇴직자는 △2016년 2월 금융관련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코나아이 비상근고문 △6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7월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8월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 △10월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재취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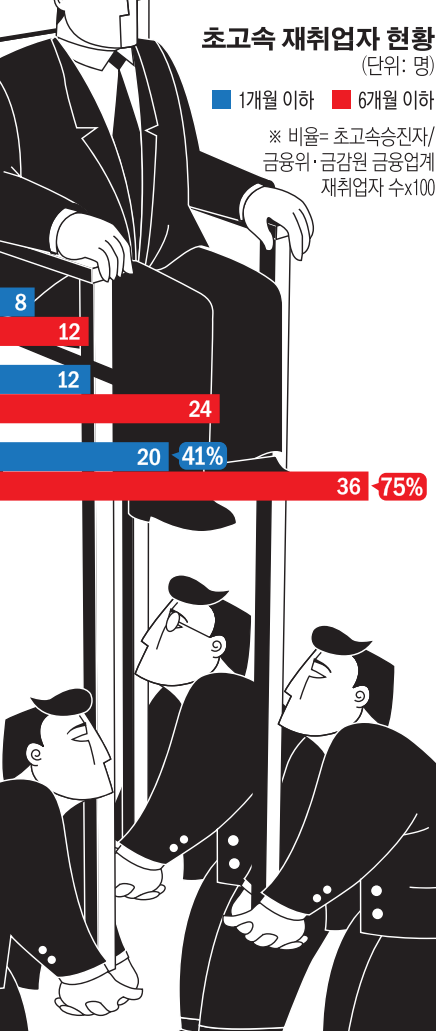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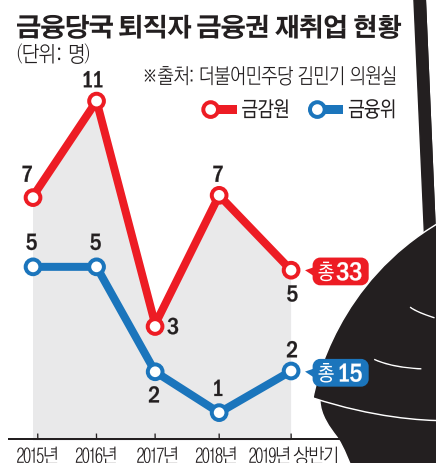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위 퇴직자들은 3년 연속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에는 금융위 퇴직자 5명이 퇴직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은 각각 같은 해 △3월 현대캐피탈 전무 △4월 한국자금중개 전무이사 △5월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장 △6월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장 △7월 삼성카드 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장은 “재취업할 때 유관업계로 가는 비율이

높다고 관행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을 떠나야 한다”면서 “사퇴한 이후에 취업 심사를 받기 때문에 취업 심사에 통과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때 그만두기 때문에 재취업 문제를 특혜라고 하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퇴직자,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증권사 고위직행(行) = 금감원 퇴직자 역시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등 유관기관장 자리에 오르거나 금융투자회사나 저축은행, 증권사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이들 역시 1, 2개월 만에 초고속 재취업 성공 사례를 남겼다.

▶8면에 계속  
나경연 기자 contest@



## “허술한 법 방조한 국회가 문제 ‘3년간 취업제한’ 예외 없애야”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국회가 금피아 재취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 아직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득의(사진)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금융당국 퇴직자가 관련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대표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로 이를 방조하는 국회를 꼽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자는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명시한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의 빈틈을 노린, 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이런 법의 허술함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특정한 사건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정부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사모펀드, DLF·DLS에 매몰됐는데 이런 금피아 관행 문제는 매년 국회가 지적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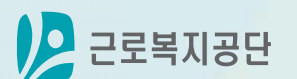
로 재취업하는 퇴직공직자가 많은데 이들은 퇴직 전 부서에서 저축은행 담당이 아니었다고 취업제한을 피해간다”면서 “퇴직 전 업무를 저축은행, 보험사, 은행 등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에 있던 직장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느 곳으로도 재취업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명시한 취업제한 기간 3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이 있지만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은 1, 2개월 만에 취업을 한다. 인사혁신처가 이런저런 예외사항을 다 들어주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 후 1년은 자신이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전 직장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3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이 미미해지므로 명시된 기간만 확실하게 지키면 금피아 취업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글·사진/나경연 기자 contest@

## 오직 근로자만을 위한 초저금리 정부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연리 1.5% 2,000만원 한도



### 신청 대상

| 근로형태별 | 융자 신청 대상                                                                      |
|-------|-------------------------------------------------------------------------------|
| 정규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
| 비정규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br>*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

### 융자 조건

- 연리 1.5% (1,000만원 융자 시 월이자 약 12,500원 발생)
- 1년거치 3년/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 융자 방법

별도 담보없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이용 (보증료 0.9%~1% 신청인 부담)

기업은행(인터넷, 모바일)에서 대출 실행

### 융자 종류

| 융자종류     | 신청요건                                                                                                                                                                                          | 한도액                                                                   |
|----------|-----------------------------------------------------------------------------------------------------------------------------------------------------------------------------------------------|-----------------------------------------------------------------------|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                                                                                                                                                         | 1,250만원                                                               |
| 자녀 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1,000만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원)                                              |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
|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원)                                             |
| 임금체불 생계비 |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br>(퇴직근로자) 체불 발생 사업장에서 퇴직 후 6개월 이내로서,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내)<br>1,000만원 한도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 융자종류는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포함 총 8종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문의 | 상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경단녀 14.8만명 감소… 알고보니 비혼·만혼 때문

## 통계청 '경력단절 여성 현황'

인구구조 변화·비혼 추세에

기혼 여성 16만2000명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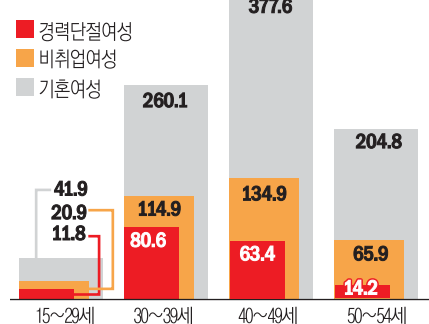
경단녀 많은 3040 기혼女 급감

올해 경력단절 여성이 지난해보다 14만 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혼·만혼 추세로 주된 경력단절 사유인 결혼과 임신·출산이 급감한 탓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8000명(8.0%) 줄었다. 비혼·만혼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로 기혼여성이 884만4000명으로 16만2000명(1.8%) 감소한 게 결정적인 이유다.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경력단절 포함)도 336만6000명으로 9만 명(2.6%) 감소했다.

사유별로 보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64만9000명으로 3만 명 늘었으나, 결혼과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각각 52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만 명)



※ 출처: 통계청

만2000명으로 11만2000명, 38만4000명으로 6만 명 줄었다.

결혼과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줄었다기보단 결혼과 임신·출산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직전 조사시점 다음 달인 2018년 5월부터 올해 조사시점인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31만84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2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24만9900건으로 1만2600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15~29세 기혼여성은 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8000명 감소했다. 경력단절 여성도 2만1000명 줄

었다.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로 경력단절 비율이 높은 30~40대 기혼여성이 급감했다. 1년 새 30대 기혼여성은 8만9000명, 40대는 10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30~40대는 기혼 여부를 떠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40대는 기혼여성이 10만3000명 줄었음에도 경력단절 여성은 2만7000명 주는 데 그쳤다. 인구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경력단절 여성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은 고용지표에서도 확인된다. '4월 고용동향'에서 20대 여자와 40대 여자의 고용률은 각각 0.5%포인트(P)씩 하락했다. 인구효과보다 경력단절효과가 큰을 뜻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5~54세 여성 고용률과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율은 최근 상승세인데, 이는 인구효과를 감안해도 경력단절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감소에 혼인·출산 등 취업여건 외 요인의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박용만 "데이터3법 처리 약속 지켜야"

### 29일 본회의 통과 촉구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각 당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을 대변하는 저희(대한상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는 다 돼가고 있다"며 "이 법들이 처리 안 되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야 하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약속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이 법을 기다리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 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전·현직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7대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

## 명목·실질 실효환율 쏘 더 확대

마이너스물가 후폭풍… 16년 3개월 만에 최대 격차

마이너스물가를 기록한 후폭풍이 실효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원화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 간 격차가 또 벌어지며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급락에 실질실효환율 상승률은 60개국 중 13위에 올랐다. 직전 달에는 3위를 기록한 바 있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25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0월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 대비 0.47%(0.5포인트) 상승한 107.4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헝가리(0.59%)와 불가리아(0.50%)에 이어 세계 60개국 중 13위에 달한다. 영국이 1.40%로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멕시코(1.26%)와 폴란드가(1.1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미중 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원

화 강세). 실제 10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13.42원) 떨어진 1184.13원을 기록했다.

명목실효환율도 0.69%(0.77포인트) 오른 113.04를 보였다. 이에 따라 명목과 실질 실효환율 간 격차는 5.55포인트를 기록해 2003년 7월 5.66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8~9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소비자물가도 0% 상승세(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질실효환율이란 세계 60개국의 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상승하면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을, 하락하면 강화됨을 의미한다. 명목실효환율은 교역량만 가중 평균한 지표다. BIS는 3월 실효환율 발표부터 기준 61개국 중 베네수엘라를 뺀 60개국으로 집계 중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표준화 연구센터 구축… 무역장벽 걷어낸다

### 한·아세안 기술표준 ㉞ 한·아세안 '기술표준' 길 열렸다

표준은 제품·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에서는 상호 호환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제품의 생산·유통 등의 효율화 및 상거래를 촉진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세계 무역의 기초가 되는 표준은 수출 지향적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요소다. 국제적으로 표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세계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표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표준 협력을 확대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아세안 표준 현황과 중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3회에 걸쳐 신는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거둔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 정부, 지속가능 표준·인증 제공 국내 기업 아세안 진출 확대 기대

는 점이다.

현재 아세안은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자 표준 조화나 상호인정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표준과 적합성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 및 물리적 인프라 부족,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역량의 경우 시험소·인증기관·중소기업의 표준 준수 역량의 부족이, 물리적 인프라에서는 시험시설·IT 인프라 부족이, 거버넌스에서는 복잡한 표준 채택 및 개정 절차, 불명확한 규제 체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아세안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진출에 유리한 표준 기반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아세안에 다양한 표준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발적이고 각 나라 방식의 표준, 기술, 시스템, 제도 이식으로 분절화 경향이 있어 어느 주요 공여국도 아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아세안에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표준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진출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한 새로운 기술과 분야의 표준, 인증, 적합성 평가 등은 아세안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 분야 표준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마련한다면 한·아세안 간 무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미래시장을 함께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서 "한국의 표준, 기술 규정 운영 경험을 공유해 아세안 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상생번영 공동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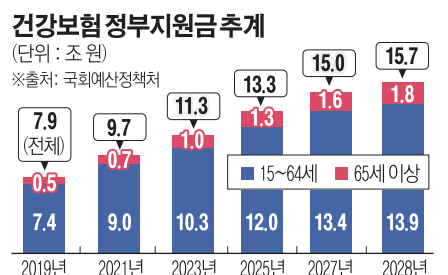
### "보장성 확대로 국민 부담 가중"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 원, 2028년 15조7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지원금 증가의 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충당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 수입 증가다. 정부 지원금은 예상 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정해진다.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52만 명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



자는 2028년 487만 명으로 1.9배 늘지만, 같은 기간 15~64세(생산연령인구) 납부자는 2201만 명에서 2378만 명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비율도 4.9%에서 10.4%로 2.1배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을 과거 10년간 평균치 내외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예정치도 이를 반영해 보험료율이 내년 3.20%, 2021~2022년 3.49%씩 오르고, 이후 인상률이 3.2%로 고정될 것을 전제로 추계를 작성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문 대통령 “혁신에 국경 없다… 스타트업 손잡자”

## 한·아세안정상회의

“신남방정책 속도… 미래 협력을  
스타트업 엑스포 ‘킴업’ 연례화  
북미 회담 재개 목소리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이틀째인 26일 다자간 회의와 스타트업 서밋, 한·미얀마 정상회담, 한·라오스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부산 벡스코에서 오전에 열린 특별정상회의는 1·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30&30(제1세션)’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제2세션)’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쾅라웃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제1세션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2017년 천명한 ‘신남방정책’이 이루어 온 성과를 평가하고,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아세안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계성 증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계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은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연계성 증진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등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어진 업무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히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쾅라웃 짬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쉰웁 푸크 베트남 총리,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쾅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슬릿 라오스 총리.

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이 계속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이 하나가 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계는 무의하다”며 필리핀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 인도네시아 ‘고젝’, 싱가포르 ‘그랩’, 캄보디아 ‘북미버스’ 등 아세안 각국의 스타트업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파트너십’ 합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

고 약속했다.

킴업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유니콘, 투자자 및 정부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협력의 장이다.

스타트업 콘퍼런스에는 크래프톤, 쿠팡, 고젝, 부갈라팍, 큐레이브드 등 한·아

세안의 유니콘 기업 및 글로벌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출연해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와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부산=정일환 기자 whan@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예산 1000억 증액”

## ‘민식이법’ 처리 힘 실은 당정

무인카메라 8800대 등 설치

“내일 ‘해인이법’ 등 일괄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

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하굿길 보행 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군의 부모를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명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눈물의 호소를 들은 뒤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깊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결과 ‘민식이법’은 하루 만인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금융의 모든 순간

해외여행 갈 때

보험은 ON

복잡한 서류

절차는 OFF

여행 갈 때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단 한번 가입으로 여행 전 간편하게 ON!

On-Off 해외여행보험

보험사 최초!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1 가입은 한 번만

안 바쁠 때 미리 가입하고, 여행 갈 때마다 간편하게 ON!

출국 전 언제 어디서나!

집, 공항, 이륙 전 비행기, 어디서나 편리하게 ON!

보장은 든든하게!

각종 사고와 휴대물품 보장까지 든든하게 ON! (해당특약가입시)

보험료는 가볍게!

두번째 해외여행부터는 10% 할인!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 On-Off 해외여행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앱, 모바일(https://m.nhfire.co.kr) 및 전국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지점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nhfire.co.kr

1644-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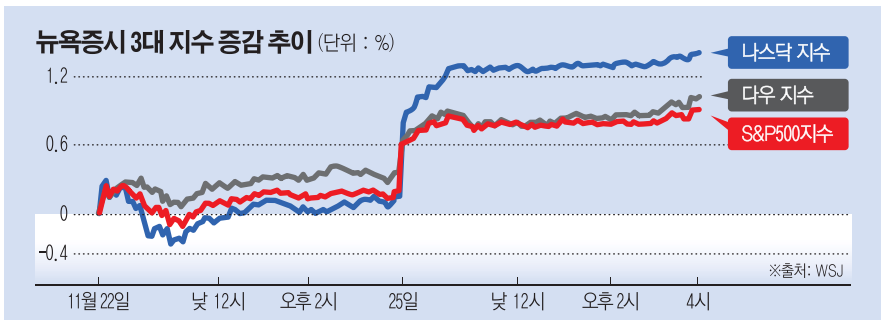
# 메가톤급 ‘M&A 랠리’… 뉴욕증시 또 사상 최고치

찰스슈왑·이베이·LVMH 등  
하룻새 인수합병 규모 82兆  
시장호황에 美 3대 지수 추풍

글로벌 기업들의 잇단 기업 인수·합병(M&A) 소식에 미국 뉴욕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날아올랐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M&A를 발표했다. 하루 M&A 규모만 700억 달러(약 82조 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M&A 전성시대다.

이날 M&A 소식이 시장을 달궜다. 미국 은행·주식중개 회사인 찰스슈왑이 온라인 증권사 TD아메리트레이드를 26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보유한 고객은 2400만 명, 고객 자산만 5조 달러



에 이르면서 ‘공룡’ 증권사가 탄생했다.

월터 베팅거 찰스슈왑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어도 티켓 판매 사업 ‘스탑허브’를 스위스의 티켓 판매업체 ‘비아고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매각 규모는 총 40억5000만 달러

(약 4조7000억 원)이며 전액 현금 거래 방식이다. 스타트업과 비아고고는 합병 이후 70개 국가에서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세계 최대 명품업체인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182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유서 깊은 주얼리 업체 티파니를 손에 넣으면서 글로벌 럭셔리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LVMH는 티파니를 주당 135달러, 총 162억 달러

에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17년 크리스찬디올을 13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넘어 LVMH의 사상 최대 규모 M&A로 기록됐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미국 바이오제약사 메디신스 인수도 임박했다. 노바티스는 주당 85달러, 총 91억 달러(약 10조 7000억 원)에 메디신스를 인수해 심장 치료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M&A를 통해 노바티스의 시장가치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기업들의 M&A 소식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잇단 대형 M&A로 M&A시장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다. 아누 아이엔가 JP모

건체이스 북미 M&A 사업 담당자는 “성장이 필요한 기업들에 M&A는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 기조도 주식 시장 상승세를 지지했다. 주식 매입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M&A 호황에 뉴욕증시는 날아올랐다. 이날 3대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0.85포인트(0.68%) 상승한 2만8066.4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35포인트(0.75%) 오른 313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2.60포인트(1.32%) 상승한 8632.49에 각각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또 다른 새로운 증시 기록이다. 즐겨라!”라며 자신의 치적으로 돌렸다. 김서영 기자 0jung2@

## IS 수괴 잡은 군견 트럼프 “최고 전사”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가운데)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군견 ‘코넬’을 깜짝 공개했다. 코넬은 지난달 26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투입돼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넬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을 열어 코넬에게 메달과 명패, 인증서를 수여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 ‘티파니’ 삼킨 아르노 ‘세계 최고 갑부’되나

LVMH, 대형 M&A에 추가 급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세계 최대 명품업체로 키운 베르나르 아르노(사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고 부자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르노 회장은 25일(현지시간) LVMH가 미국의 유서 깊은 주얼리 업체 티파니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주가가 치솟으면서 세계 1, 2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설립자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고 CNN비즈니스가 보도했다.

LVMH 주가는 이날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 2%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추측하는 ‘실시간 억만장자 순위’에서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하루 만에 21억 달러(약 2조4700억 원) 늘어난 10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르노 회장과 그 일가는 LVMH 지분을 47% 이상 보유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부자 1위인 베이조스의 재산은 1105억 달러, 2위 게이츠는 1070억 달러였다.

4위 워런 버핏 재산은 863억 달러였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741억 달러로 5위, 래리 엘리슨 오라클 설립자가 692억 달러로 6위에 올랐다.

투자자들이 LVMH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만큼 아르노 회장의 재산도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LVMH의 주가 상승 폭은 약 57%에 달했다.

아르노 회장은 단일 브랜드의 가족기업이 대부분이었던 유럽 명품업체에 M&A로 새바람을 불려일으켰다. 그는 아버지로 부터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러다가 1984년 크리스찬디올의 모기업이었던 부삭그룹을 인수하면서 명품업체에 뛰어들었다. 이후 굴지의 명품 브랜드들을 사냥하면서 LVMH를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으로 키웠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中 ‘로봇굴기’…4년간 13개 글로벌 기업 품었다

### 美 지식재산권 견제 뚫고 해외기업 인수·출자 박차

중국이 ‘로봇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지식재산권의 집대성으로도 불리는 산업용 로봇산업 육성 계획을 천명한 이후 4년간 중국 기업이 인수하거나 출자한 해외 기업은 최소 13개사(계획 포함)에 이른다고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로봇 등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견제에도 아랑곳없이 해외 로봇 기업 인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산업용 로봇업체 에스톤은 최근 독일의 유서 깊은 로봇업체 칼클루스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1919년 설립된 칼클루스는 자동차용 강판 용접 로봇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인수 규모는 230억 엔(약 247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은 상태여서 연내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톤의 해외 기업 인수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7년 영국 트리오 등 3

### 중국 로봇업체들의 해외 기업 인수·출자 사례

※1달러=약 108엔, 1유로=약 120엔, 1프랑=약 136엔으로 환산

| 중국 기업       | 인수·출자처      | 투자액     |
|-------------|-------------|---------|
| <b>2016</b> |             |         |
| 메이디그룹       | 쿠카(독일)      | 4400억 엔 |
| 저장완형커지      | 파스린(미국)     | 330억 엔  |
| 이포트         | 에포루토(이탈리아)  | 10억 엔   |
| 에스톤         | 에우클릿토(이탈리아) | 2억 엔    |
| <b>2017</b> |             |         |
| 이포트         | WFC(이탈리아)   | 150억 엔  |
| 이포트         | 로봇구스(이탈리아)  | 6억 엔    |
| 에스톤         | 트리오(영국)     | 21억 엔   |
| 에스톤         | 팔렛트(미국)     | 10억 엔   |
| 에스톤         | MAI(독일)     | 10억 엔   |
| <b>2018</b> |             |         |
| 선양산성        | 신성 자회사(한국)  | 100억 엔  |
| <b>2019</b> |             |         |
| 이포트         | CMA(이탈리아)   | 비공개     |
| 하공조닝        | NIMAK(독일)   | 80억 엔   |
| 에스톤         | 클루스(독일)     | 230억 엔  |

※출처: 니혼게이지아신문

개사를 잇따라 인수하는 등 중국 기업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로봇 제어 시스템을 다루는 하공조닝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 산업용 로봇에 강한 독일 니막(NIMAK)을 약 6500만 유로(약 84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나 항공기 등 많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핵심이 되

는 장치다. 생산기술이 집약돼 있어 지식재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국은 유럽과 일본의 선진국에 뒤처져 있었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한 교육지책이 해외 기업 인수다.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경영이 미숙한, 오랜 역사를 지닌 중소기업들을 주요 인수 타깃으로 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내걸고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사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정부 보조금이나 해외 기업 인수·출자를 통한 중국으로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공격적인 투자를 보낸 중국 측은 로봇산업에서만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이며 현지 제조업체 전체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닛케이에는 올해 중국 제조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약 3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홍콩증시 데뷔’ 알리바바…주가 7% ↑

反정부 시위 리스크 딛고 상장 첫날 공모가 크게 웃돌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이 홍콩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2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알리바바 주가는 홍콩 증시 데뷔 첫날인 이날 오전에 공모가(176홍콩달러, 약 2만 6000원)보다 6% 이상 높은 187홍콩달러로 출발해 한때 7% 이상 뛴 189.50홍콩달러까지 올랐다.

2014년 9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이번 홍콩 상장을 통해 보통주 5억 주에 그린슈 옵션(조과배정옵션) 7억5000만 주를 발행, 총 1012억 홍콩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홍콩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로 따지면 12월에 상장을 앞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사우디아라코를 제외하고 가장 크다.

이번 알리바바 증복 상장에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각국 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할당된 주식 중 3분의 1이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설명했다.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은 이번 상장을 통

해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홍콩증권거래소는 2018년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나 올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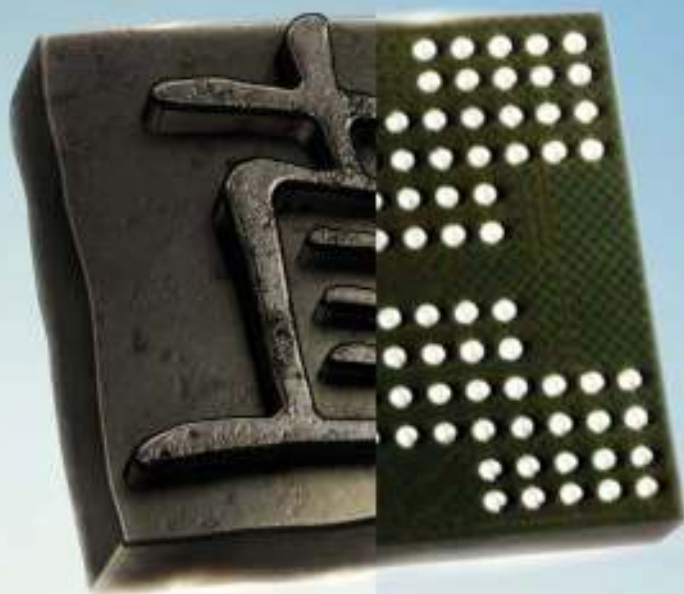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정국 불안이 심화하자 홍콩 증시 상장을 예정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연기하면서다. 애초 알리바바도 8월 말 홍콩 증시 상장을 계획했으나 반정부 투쟁이 이어지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다.

알리바바의 성공적 홍콩 증시 데뷔는 위축된 홍콩 증시와 경제에 실질적·심리적으론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매기 우 알리바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홍콩은 매우 좋은 시장이다. 2014년에 상장하고 싶었는데 규정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상장을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상장 대열에 합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휩쓸며 압승을 거뒀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세계 최초 금속활자 도시 청주에서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  
세계최초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 간행



2019년 청주 SK하이닉스  
세계최초 128단 4D 낸드플래시 개발



We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 ‘키코 사태’ 11년 만에 피해 보상안 나온다

## 금감원, 내달 분조위 개최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 보상비율을 포함한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분조위를 추진한 지 꼬박 6개월 만에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조위를 연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DLF와 별건으로 시차를 두고 하겠다”고 말했다. DLF 앞서 키코 분조위를 먼저 개최해 매듭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분조위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키코 보상안을 포함한 안건들이 이미 분조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막바지 조정에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 분조위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 키코 재조사는 지난해 5월 금융행정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석현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속도를 냈다. 윤 원

## 보상비율 간극 커 세 차례 무산

### 금융당국 막바지 의견 조율

## “DLF 사태 앞서 별건으로 처리”

장은 취임 후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키코 공대위를 만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과 분쟁 조정을 약속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윤 원장은 6월과 10월과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분조위 개최를 약속했지만 무산됐다. 문제는 보상비율이었다. 키코 공대위 측이 주장하는 보상비율과 은행이 생각하는 보상안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다.

분조위 조정 대상 은행은 신한·산업·우리·하나·씨티·대우은행 등 6곳이며, 피해 금액은 1500억 원에 달한다. 피해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 키코 사태 주요 경과

|           |                               |
|-----------|-------------------------------|
| 2008년 5월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 2008년 11월 | 키코 손실 97개 중소기업, 은행 상대 공동 소송   |
| 2013년 8월  | 대법원, 키코 불공정거래 행위 아니다 판결       |
| 2017년 12월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키코 재조사 권고          |
| 2018년 5월  | 윤석현 금감원장 취임                   |
| 2018년 6월  | 금감원, 키코 재조사 착수(키코 분쟁조정전담팀 구성) |
| 2019년 10월 | 금감원, 은행들에 배상 권고 초안 발송         |
| 2019년 12월 | 금감원 분조위 개최 예정                 |

피해기업 배상 비율은 개별 은행에 따라 피해액의 20~30%가 유력하다. 구체적인 분조위 안건은 비공개지만, 통상 안건을 상정하면 당일 모두 처리된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은행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씨티)은 보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반해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산업은행이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협상이 지연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 조율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키코 보상에 칼자루를 쥔 금감원과 사실상 상급기관인 금융위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시중 은행장과 조찬회동을 연다.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DLF를 포함해 키코 보상안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개최에 앞서 시중은행에 최후 통첩을 날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키코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봉구 공대위원장은 “금감원에서 키코 사건을 불법행위로 간주한 만큼 사법부에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다는 은행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피해기업들이 보상 받을수있는 길을 검찰에서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금융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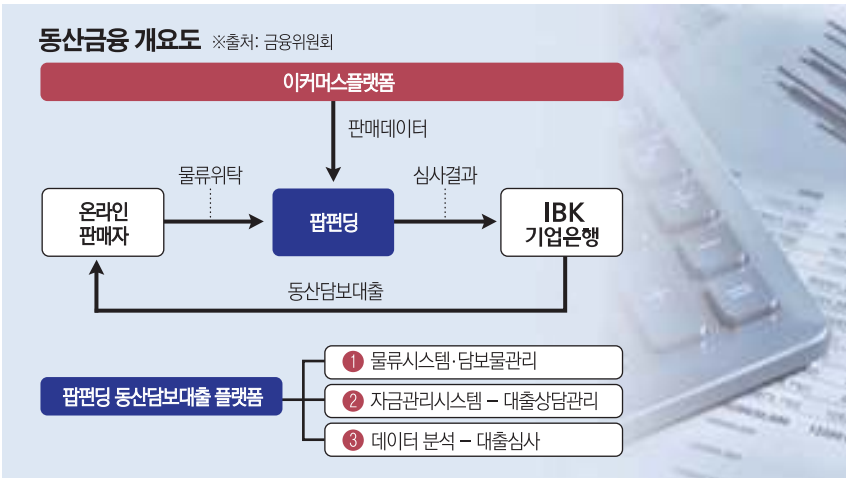
## 은성수 “동산담보 법 개정·회수 기구 설치할 것”

### 파주 팝펀딩 창고서 현장간담회 “동산금융 활성화 인프라 구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동산금융현장을 찾아 동산담보법 개정과 동산담보 회수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경기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 관행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지나해 말 7355억 원에서 9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 299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 새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



보법 개정과 동산담보 회수 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 창고에 온라인소

핑 판매업자 재고를 보관하고 이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동시에 재고 관리와 출고·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은행권이 꺼린 재고자산 담보대출을 하

고 있다. 팝펀딩은 3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기업은행과 재고자산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며 이달 기준 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동산담보법 개정과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입법 예고된 동산담보법 개정안은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상호 미등기자라도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을 담고 있다. 또 회수시장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

이 밖에 기술평가와 성장성 평가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과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를 내년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BC카드-디스커버, 파트너십 체결

BC카드는 26일 국제 결제망 서비스업체인 ‘디스커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일리노이주 리버우드 디스커버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문환 BC카드 사장과 조 헐리 디스커버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C카드는 디스커버 글로벌 네트워크 계열 카드의 국내 매입 업무를 전담한다. 또 관련 신규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 중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 글로벌 네트워크는 디스커버가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망 연합이다. 디스커버 네트워크와 다이너스 클럽 인터내셔널, 펠스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터키 등 15개국 이상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기업 PR〉



## 방문규 수은행장 첫 현장 행보... “혁신성장 기업에 자금 적기 지원”

### 부산지점 방문 일일사원 변신 고객 여신지원 실무 몸소 체험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방문규 은행장이 수 부산지점의 일일사원으로 나서 고객 지원 실무를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 행장은 수 부산지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상담·여신승인·사후관리에 이르는 여신지원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방 행장은 이 자리에서 “고객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소매금융 중심으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뱅킹을 기업금



방문규(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5일 부산지점을 방문해 일일사원으로 고객 지원 실무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융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는 부산지점 방문에 이어 방 행장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오토닉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이사는 “혁신성장 분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 절실하다”면서 “오토닉스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은이 연구개발, 운영자금, 해외 현지법인 설비투자 등 다양한 자금 수요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신사업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면서 “혁신성장 분야 기업의 적기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 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혁신성장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조했다. 수은은 내년도 혁신성장 분야 지원 목표를 올해보다 대폭 늘려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한 퇴직자 4명은 각각 금융보안원 원장,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 문위원,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재취업했다. 2017년에는 퇴직자 2명이 각각 1월과 4월 하나금융투자 상무와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퇴직 후 2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퇴직자 9명이 관련 금융업계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중 6명은 같은 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무 △한국투자증권 차장 △신한금융투자 상근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 경영임원 △롯데카드 감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감독이사로 퇴직 후 1개월 만에 재취업했다. 나머지 퇴직자는 △하나금융투자 차장 △디에스자산운용 비상근 고문 △신용협동조합중

앙회 순회감독역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에는 퇴직자 6명이 관련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 2명은 같은 해 4월과 12월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갔다. 또 다른 퇴직자 2명은 7월과 10월에는 보험연수원 원장,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 퇴직자 2명은 같은 해 3월과 10월 각각 교보증권 소비자보호실본부장과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 금피아 꿈수취업

▶3면서 계속

올해 금감원 퇴직자 2명은 4월과 6월 무궁화신탁 고문과 디에스투자증권 감사로 퇴직 후 1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퇴직자 2명이 같은 해 2월과 3월 아주캐피탈 부사장과 전북은행 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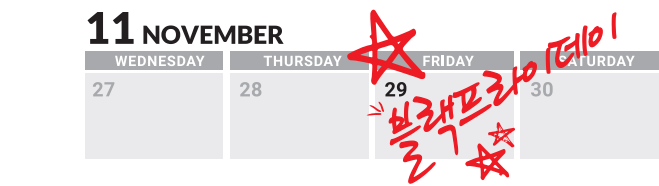
###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퀴즈’ 최대 100만원 캐시백 혜택 제공

삼성카드사는 30일까지 ‘다이렉트 오토 퀴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 오토 퀴즈 행사에 참여해 정답을 맞히면 된다.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행사 응모 후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전 차종 신차 구매 시 할부원금 기준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카드사는 2016년 7월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자동차 금융을 모바일로 전환한 다이렉트 오토를 출시했다. 올해 2월 ‘내 차 시세 조회’와 7월 ‘내 차 팔기’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자동차 금융 관련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해온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다이렉트 오토, 내 차 시세 조회 등 온라인 기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선보여왔다”며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결제사, 국내외 쇼핑물 제휴  
캐시백·배송비·관부과세 할인 등  
온·오프라인 고객 마케팅 붐몰

카드업계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29일)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 매(직구) 고객 잡기에 나섰다. 특히 11월 은 중국 광군제(11일)와 한국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이 함께해 카드사가 매년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쇼핑 물과 직접 제휴를 맺고, 글로벌 결제사가 한국 직구족을 직접 공략하는 등 마케팅 형태도 다양화됐다.

◇국내 카드사, '캐시백' 혜택으로 무장 =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미 국 최대 쇼핑물 '아마존닷컴'과 할인 행사 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15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사전 행사를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관련 행사를 이어간 다. 이 기간 아마존에서 신한카드로 130달 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500달러 이상 구 매 시 30달러 즉시 할인해 준다. 또 올해부 터는 배송 대행지를 통해 구매하는 상품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할인 적용 상 품이 많아져 고객 체감 혜택도 커질 전망 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아마존과 3년 장기 협 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협약 이 후 첫 번째 결과물로 앞으로 다양한 영역 에서의 고객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BC카드는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과 배송비 할인 행사를 진 행한다. BC카드는 '글로벌엔BC' 행사를 진행한다. 자사 페이스북 앱에 '#마이태그' 로 행사를 태그하면 참여할 수 있다. BC유 니온페이카드 고객이라면다음 달 20일까

카드사 주요 해외 직접구매 혜택

| 회사   | 기간              | 혜택                                            |
|------|-----------------|-----------------------------------------------|
| 신한   | 12월 15일까지       | 130달러 이상 구매시 10달러, 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
| BC   | 12월 20일까지       |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 각각 누적 50만 원 이상 결제시 최대 10만 원 캐시백 |
| 하나   | 11월 29일~12월 6일  |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서 30달러 이상 결제시 4달러 할인(선착순 1만 명)    |
| 우리   | 12월 6일까지        | 이베이와 페이팔, 아이튠즈, 알리페이 등 주요 쇼핑물 이용시 최대 5만 원 캐시백 |
| KB국민 | 12월 3일까지        | 미국 아마존 15% 즉시 할인(75달러 이상 결제시 최대 50달러)         |
| 현대   | 11월 29일         | 100달러 이상 구매시 15% 할인(최대 75달러 청구할인)             |
| 마스터  | 12월 31일까지       | 몰테일 이용 고객 배송비 3달러 할인, 관부가세 5달러 할인             |
| 비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자사 프리미엄 카드 3종 고객 해외 명품 쇼핑 플랫폼 이용시 15% 할인      |

지 해외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각 각 누적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0만 원 캐시백을 차등받을 수 있다. 또 30일까 지 해외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BC 카드로 누적 30만 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2만 원 캐시백을 차 등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최근 해외 직구족 공략 마케팅 전략에 맞춰 중국 광군제 고객으로 마케팅 범위를 넓혔다. 하나카드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작일인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쇼핑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하나카드로 30달러 이상 결 제한 고객 선착순 1만 명에게 4달러를 즉 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식은 결제 시 하나카드 행 사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마스 터브랜드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 에 따라 최대 15달러를 추가 즉시 할인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카드 행사코드 할 인과 함께 최대 19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 다. 이 행사는 중국 광군제 기간인 11일부 터 18일까지 한 차례 진행됐다.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아마존에서 15% 즉시 할인 혜택을 선착 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75달 러 이상 결제 시 최대 50달러까지 진행된 다. 현대카드는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인 29일 아마존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5% 할인(최대 75달러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다음 달 6일까지 이베이와 페이팔, 아이튠즈, 알리페이 등 온라인 쇼 핑몰 이용 고객에게 1만~5만 원 캐시백 행

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8일까지 아마 존 이용 고객 가운데 누적 20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 10% 캐시백(최대 5만 원) 을 제공한다.

◇글로벌 결제사, 국내외 쇼핑물 연계 행사 초점 = 마스터카드는 블랙프라이데 이를 맞아 연말까지 국내 최대 규모 직구 플랫폼 '몰테일'과 해외 직구 고객의 배송 비·관부가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말까지 몰테일을 이용하는 마스터카드

고객은 배송비 3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관부가세 50달러 이상 결제 시 5달러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배송비 할인은 이용 고객 가운데 선착순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외 직 구 상품 구매 후 몰테일을 배송 대행지로 설정한 고객이 배송비를 결제할 때 국내에 서 발급된 마스터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3달러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직구 과정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관 부가세)가 50달러를 초과할 때 몰테일에 서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면 선착순 2000명 에게 5달러를 할인해 준다.

비자는 내년 말까지 해외 직구족 대상 행사를 진행한다. 비자는 자사의 프리미엄 카드 3종(시그니처, 인피니트, 플래티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행사를 시 행한다. 해당 카드 고객은 행사를 통해 미 국 프리미엄 백화점 블루밍데일즈와 명품 브랜드 플랫폼 파페치, 키르나 자베테, 파 이브스토리, 루이자비아로마 등 온라인 쇼 핑 플랫폼에서 가맹점별 할인 코드를 통해 최대 15%의 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해외 직구, 유의할 점은

# 여러 상품 다른 날 주문했어도 입항일 같으면 합산 과세 부과

## 연락두절·미배송 등 사기 의심 뎀 차지백 서비스로 거래 취소 추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해진 외국 유명 할인 행사다.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이 용하는 이가 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들쭉 이고 있다. 직구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 된 해외직구 관련 피해 상담은 해마다 급 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2건에 불과했 지만 2016년 361건, 2017년 146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027건에 이어 올해 들 어 10월까지 2250건이 접수됐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전후 한 11월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 다. 지난해 접수된 4027건을 월별로 살펴 보면 11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439건으 로 7월(451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12월 접수 건도 359건으로 11~12월 접수 건이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구 유의점을 알아둬야 한다. 우선 수입금지 품목 구매 시 수수료 발생한다는 점이다.

해외직구를 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이때 관부가세란 상품에 따른 관세와 부가세다. 관세는 국가가 국가 재정의 수입을 위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세란 해당 상품에 관세를 더 받는 부과세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 국내 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쌀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관부가세, 배송비 등 을 더해 기존의 국내 가격보다 값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날 주문을 해도 입항 날짜가 같으면 합산 과세가 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결제 후에 발생하는 사기 피해도 경계해 야 한다. 해외배송은 배송 기간이 오래 걸 리기 마련이다.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거나 연락두 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 생되기 쉽다. 이럴 땐 신용카드 차지백 서 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차 지백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 을 때 카드회사에 바로 입금된 거래를 취 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해외직구 특성상 피해 보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국 기관과 협 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와 광군제 이후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구 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 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www.douzone.com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판매 자동수진, 자동반납, 자동입매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민을 위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용 ERP  
더존 iCUBE ERP 실시간 더존 iCUBE Cloud Edition 클라우드 실시간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무역관리

구매자재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공시현장관리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iCUBE G20 비영리 실시간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클라우드 실시간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영업관리

구매자재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 4차 산업혁명 '스타' 찾아라

## ‘스타트업 요람’에서 ‘손정의 펀드’ 참여까지



26일 '삼성 서울R&amp;D캠퍼스'에서 열린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 참여 스타트업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같은 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AI·빅데이터 토크 콘서트'.



##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

‘사외 스타트업 육성’ 1년  
해외 진출·매출 확대 성과  
올해 18개 업체 신규 선발

2016년 설립된 스타트업 픽셀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만으로 쉽게 눈 검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픽셀디스플레이의 기술은 인도에도 진출했다. 하주는 픽셀디스플레이 매니저는 “삼성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다른 사업파트너들과의 업무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이 1년 만에 결실을 봤다.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매출도 올랐다.

삼성전자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서울R&D캠퍼스에서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전자가 7년간 운영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의 노하우를 사외로 확대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5년간 500개의 사내외 스타트업 과제를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스타트업들이 온전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원의 사업 지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선발돼 1년간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20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유아 인지발달 솔루션을 개발하는 두브레인은 C랩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 올해 2월 정식으로 선보인 애플리케이션은 누적 다운로드 31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 6월 캄보디아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이 현지 아동 300여 명에게 태블릿으로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범 교육도 진행했다. 최예진 두브레인 대표는 “애초에 봉사활동에서 시작한 조직이었다”며 “삼성전자가 같이 일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여행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트래블플랜은 삼성전자 문자메시지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여행 상품 검색과 예약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데모데이에서 올해 선발된 18개 신규 스타트업도 공개했다.

주요 스타트업은 △고양이용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골골송작곡가’ △스마트폰 키보드를 연어인으로 꾸밀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비트바이트’ △효과적인 대학 수업을 위한 학습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클라썸’ 등이다. 특히 클라썸이 개발한 솔루션은 이미 일부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다. 클라썸은 지원을 통해 기존 개발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기업과 개인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LG ‘AI·빅데이터 토크 콘서트’

소프트뱅크와 AI유망주 발굴  
계열사 4곳, 200억 공동 출자  
미국 실리콘밸리에 VC 설립도

LG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손정의 AI 펀드에 200여억 원을 공동 출자한다.

LG는 2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빅데이터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승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경영진과 AI, 빅데이터 업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LG는 벤처캐피탈인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손을 잡고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4개 계열사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조성 중인 3200억 원 규모의 펀드(Growth Acceleration Fund)에 200여억 원을 공동 출자한다.

LG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외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G는 이와는 별도로 미래 준비와 기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5000억 원을 출자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벤처캐피탈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LG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구매 성향을 예측하는 기술, 제조분야에서 불량 제품을 검사하는 기술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LG는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기반으로 다수의 그래픽 처리장치(Multi GPU) 활용이 가능해져 딥러닝 작업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I 개발 인프라를 공개했다.

LG는 개발자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마우스 클릭 등으로 화면에 있는 메뉴를 선택해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를 적용했다.

또 AI 개발 인프라를 통해 계열사 간 AI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공유해 개발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아마존, 구글 등과 협업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LG는 4월 LG사이언스파크 산하에 인공지능 조직인 'AI 담당'을 신설하고, AI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LG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을 통한 사무 자동화 △오차 없이 제품을 제조하고 검증하는 공정 설계 △부품 현황과 업무 순위 등을 고려해 스스로 학습하며 최적화하는 공장 지능화 등 기업용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전기차 20분 이내 80% 충전  
현대차 초고속 '하이차저' 첫선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Hi-Charger)'를 26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처음 선보였다.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 전문업체인 대영채비와 함께 개발한 하이차저는 국내 최고 수준의 350kW급 고출력·고효율 충전기술을 갖췄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800볼트 대용량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는 하이차저를 이용하면 2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향후 하이차저가 전기차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 탄소·물발자국 인증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

삼성전자는 26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영국 카본 트러스트(The Carbon Trust) 주관 '제품 탄소발자국·환경성적표지 인증 수여식(Ceremony of PCF·EPD Certification)'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우수상'을 인증받았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2001년 설립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인증 비영리 기관으로, 제조 이전 단계부터 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와 물 사용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국제 심사 기준에 따라 '탄소 발자국'과 '물 발자국' 인증을 수여한다.

삼성전자의 '512GB eUFS 3.0'은 '탄소 발자국'과 '물 발자국'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카본 트러스트가 반도체 제품의 친환경 제조 성과를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K5 사전계약 사흘 만에  
기아차 최단기간 1만대

기아자동차 3세대 K5(사진)가 사흘 만에 사전계약 대수 1만 대를 돌파했다. 기아차 모델 중 역대 최단 기간에 사전계약 1만 대를 넘긴 사례다.

기아차가 21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을 시작한 3세대 K5의 계약 대수는 사흘 만에 1만28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6월 출시한 '올 뉴 카니발'의 보유 기록 16일을 13일이나 단축한 것이다.

3세대 K5는 계약 첫날에만 7003대가 계약됐다. 기존 2세대 K5의 올 1~10월 한 달 평균 판매 대수(3057대)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창욱 기자 woogi@

## 한진 택배 4000억 투자 순항

기간 5→3년 줄여 '선제 투자'  
택배 터미널 신축·자동화 등  
올 목표액 1340억 이미 완료

한진그룹의 종합물류기업인 (주)한진이 올 초 발표했다 택배부문 투자계획을 순조롭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당초 '향후 5년간 투자'에서 기간도 3년으로 단축시켰을 뿐 아니라 금액도 200억 원가량 늘었다. 이는 택배사업 효율성 제고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진은 2월 '중장기 비전 및 경영발전 방안'을 통해 "택배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택배터미널 신축 및 확장, 설비 자동화에 약 3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6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은 올해

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982억 원을 택배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는 목표액 1340억 원 중 대부분의 투자가 이미 완료됐다.

구체적으로는 택배터미널 부지 매입 및 증축 등의 시설과 택배 자동화 등 장비에 대한 투자다.

우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허브터미널을 하루 처리 물량 100만 건 이상의 메가 허브로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역 허브터미널은 물론 200여 곳의 서브터미널에 최신 인식 스캐너, 컨베이어 벨트, 자동분류기 등 최신 자동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물류처리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1만4000㎡ 규모의 공항 물류단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한진은 내년 초



## 현대로템 '한·아세안 정상회의' 무인정찰 이상무

현대로템이 부산시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기간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HR-Sherpa(HR-셰르파)'의 원격 및 자율주행 기반 경비정찰 임무 수행 능력을 시연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HR-셰르파 차량의 상부를 비롯한 전후좌우에 카메라 탑재 장비를 설치해 주·야간 정찰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제공 현대로템

준공을 목표로 이곳에 글로벌 복합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한진은 보다 원활한 투자 재원 마련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동대구 버스터미널, 인천택배터미널 등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 가능한 주식 등

의 매각 방침을 세웠다. 최근에는 서대구 버스터미널 매각도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한진은 2023년 매출 3조 원 이상과 영업이익률 4%를 달성해 사업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은행이  
100개라도KB스타뱅킹으로  
한 번에

# 오픈뱅킹도 KB스타뱅킹

## KB 오픈뱅킹 Event



**Event 1. 다른 은행 계좌 등록하고 갤럭시 노트10,폴드 받자!**  
- 갤럭시노트10 350명, 갤럭시폴드 30명  
- 이벤트 기간 중 매일 응모 가능(1일 1회)



**Event 2. 다른 은행 계좌 등록하고 100만 원 받자!**  
-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자동 응모 / 추첨을 통해 100만 원(34명), 30만 원(127명), 10만 원(579명) 총 740명에게 현금 지급



**Event 3. 다른 은행 계좌 이용하고 다양한 경품 받자!**  
-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상품가입, 환전, 이체 시 추첨을 통해 현금, 달러복세트, 커피 상품권 지급

\* 오픈뱅킹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하여 총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편리한 금융서비스이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는 오픈뱅킹 전 기간 합산 1일 1천만원입니다.

\* Event1,2의 경우 [선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상품서비스 안내 등) '동의'된 고객에 한하며, Event2는 권유직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경품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별 중복 당첨이 불가합니다.

\* 오픈뱅킹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1906호(2019.11.15), 광고물 유효기한 2019.12.17까지

KB 국민은행

# LS ‘3세 경영시대’ 열었다

구본혁 니꼬동제련 부사장  
에스코홀딩스 CEO로 선임  
LS 주요 계열사 대표 유임  
박용상 LS산전 사장 승진



사를 단행했다”며 “능력이 검증된 주요 계열사 CEO들을 전원 유임시킴으로써 조직을 안정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 역량과 미래 혁신을 강화할 젊은 리더들을 중용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이 오너가 3세 중 처음으로 구본혁<사진> LS-Nikko동제련 부사장을 에스코홀딩스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는 등 2020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계열사 CEO를 유임하면서 큰 변화보다 조직 안정화에 무게를 둔 한편, 전무급 및 신규 이사 승진은 소폭 확대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LS는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사장 1명, 부사장 2명, 전무 6명, 상무 5명, 신규 이사 선임 13명 등 총 27명을 승진시켰다. 주요 계열사 CEO는 전원 유임됐다.

LS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에서 내년도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년(28명)과 비슷한 수준의 승진을 실시하며 ‘안정 속 변화’를 꾀한 인

LS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을 전원 유임시킴으로써 현재의 조직체제를 더욱 안정화시키고 각 사가 추진 중인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미래 준비를 더욱 가속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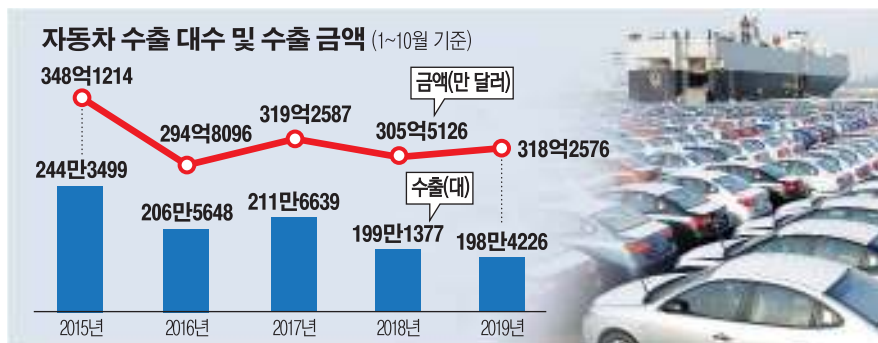
이번 인사에서 LS산전 박용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사업·DT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구본혁 부사장은 LS-Nikko동제련에서 에스코홀딩스로 이동해 대표이사 CEO를 맡게 된다.

박용상 부사장은 1988년 입사 이후 LS산전의 주력인 전력기기 사업 주요 직책을 두루 경험한 ‘전력사업 전문가’다. 생산·기

술본부장, 중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사업총괄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장기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혁 부사장은 고(故) 구자명 LS-Nikko동제련 회장의 장남으로 2003년 LS전선에 입사, ㈜LS 경영기획팀, LS-Nikko동제련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평을 받아 오너 3세 중 처음으로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CEO로 선임됐다.

LS는 주력 계열사의 CEO를 유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 등 그룹의 미래 준비를 위한 변화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차세대 경영자 육성 차원에서 전무급 이상 승진자를 올해 5명에서 9명으로 늘림으로써, CEO로 성장 가능한 후보군을 사전에 선발하고 주요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는 외부 영입 상무 1명과 이사 13명을 새로 선임했다. 밀레니얼 세대들과 소통 가능한 젊은 리더를 중용하고 해외 경험이 많은 인재도 포함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車 수출량 줄었지만 금액 4% ↑

(1~10월 누적)

수출대수 작년보다 0.36% ↓  
비싼 SUV·친환경차가 주도

올 들어 10월까지 완성차 수출 규모가 줄었지만 수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효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SUV와 고급차,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균 수출단가는 3분기에 처음으로 1만6000달러대에 올라섰다.

26일 완성차 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1~10월 누적 완성차 수출은 지난해 199만1377대보다 소폭(0.36%) 감소한 198만4226대에 머물렀다.

10월까지 누적 완성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 대 밑으로 떨어진 이후 올해에도 200만 대 고지를 넘어서는 데 실패했다.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저성장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줄어든 반면,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완성차 누적 수출 금액은 총 318억 257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금액(305만5126만 달러)보다 4.17%(12억

7450만 달러) 증가했다.

수출 금액 증가 효과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 들어 수출길에 나선 차종 대부분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신차나 대형 SUV다. 여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 수출 증가도 힘을 보탰다.

예전대 현대차 대형 SUV 팔리세이드는 울산공장 생산본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미국 신차 가격 비교 사이트인 ‘켈리블루북’을 보면 팔리세이드는 현대차(제네시스 및 전기차 제외) 현지 판매모델 가운데 가격대가 가장 높다.

상대적으로 비싼 팔리세이드는 6월부터 미국 현지판매에 나섰고, △7월(4464대)과 △8월(5115대) △9월(3495대) △10월(4357대)까지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올 3분기를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 평균 단가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3분기 자동차 수출 단가는 평균 1만6384달러로, 처음으로 1만6000달러대에 올라섰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194.22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 1957만 원에 달한다. 수출차 평균 단가가 처음으로 2000만 원에 육박한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고객센터 : 1800-4414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기업 PR>

## 현대글로비스, 해상·지상 ‘안전공감 캠페인’

현대글로비스가 ‘안전공감 캠페인’을 통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먼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한 여행을 돕고자 선박안전용품 세트 500개를 제작해 이달 배포했다. 구명조끼와 정수 알약, 담요, 비상 조명 등 생존과 구조요청에 필요한 6개 품목으로 구성된 선박안전용품 세트는 여객선에 비치돼 위급 상황 시 사용될 예정이다.

정수 알약은 작은 알약 1정으로 해수 1.1리터를 살균해 식수로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 필수적인 생존용품으로 인식된다. 비상 조명은 본체가 물에 닿으면 불빛이 최대 8시간 동안 분당 80회 반복적으로 점멸돼 효과적인 구조요청을 돕는 제품이다.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의 안전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10월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에 있는 ‘오산 졸음쉼터’의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졸음쉼터 개선사업은 현대글로비스가 시설이 노후된 졸음쉼터를 찾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여 졸음운전 방지를 돕는 사업이다. 2017년 ‘상변전 졸음쉼터’, 2018년 ‘연극 졸음쉼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사업이다.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6월 행당도 휴게소에서 체험형 안전운전 캠페인 ‘운전자 리프레시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현대글로비스가 제공하는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고 체성분 검사를 받은 뒤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상현실



현대글로비스의 ‘선박안전용품 세트’ 기증식.

(VR) 장비를 이용해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는 기회도 제공됐다. 체험자들은 현장에 마련된 안전운전시뮬레이터에 앉아 가상의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상황을 겪으며 사고의 경각심을 체감했다.

8월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마장휴게소, 횡성휴게소 등을 직접 방문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용품 세트 1만1000여 개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안전운전 용품 세트는 졸음방지용 겹과 아이스 패치, 휴대용 목베개, 차량용 햇빛 가리개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현대글로비스는 매년 군 운전병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용품 세트를 배포하며 도로 교통 안전을 강조해 왔다.

현대글로비스는 2015년부터 운영한 안전공감 캠페인을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베일 벗은 ‘리니지2M’… 엔씨, 모바일 독주 채비

제작기간 2년6개월·개발진 150명… 사전예약 738만 건  
4K UHD급 해상도 풀3D 그래픽… PC와 ‘크로스 플레이’  
‘리니지M’과 시너지 기대… 모바일 왕좌 ‘집안 싸움’ 가능성

국내 온라인 게임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게임 중 하나로 ‘리니지’가 꼽힌다. 1998년 출시돼 20년 이상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을 이끌어온 대표작이다. 2003년 등장한 후속작 ‘리니지2’는 전작에 비해 3D로 탈바꿈하며 게임의 퀄리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리니지2가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해 유저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다중 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M’이 베일을 벗었다. 총 2년 6개월간 150명의 개발진이 투입돼 만든 리니지2M은 27일 0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리니지2M은 사전예약 738만 건, 캐릭터 사전 생성에서는 준비한 120개 서버가 모두 마감되는 등 국내 모바일 게임 최대 기록을 남기며 역사의 한 줄을 또 채우게 됐다.

◇리니지M을 잇는 ‘리니지2M’…퍼플로 크로스 플레이 지원 = 리니지2M은 원

작의 역사를 계승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 MMORPG 장르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리니지M에 이어 선보이는 두 번째 ‘M’ 타이틀이다.

리니지2M은 모바일 최고 수준의 4K UHD(Ultra-HD)급 해상도의 풀3D 그래픽으로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게임 중 고퀄리티 그래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플레이어의 몰입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배제한 ‘심리스 로딩(Seamless Loading)’, 모바일 최대 규모의 ‘원 채널 오픈 월드’, 고도화된 전략과 전술로 구현된 ‘리니지 전투의 완성’ 등을 내세워 이용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리니지2M은 PC와 모바일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한다. 엔씨소프트는 차세대 게이밍 플랫폼 ‘퍼플’도 출시해 리니지2M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다. 퍼플을 의미하는 색깔인 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리니지2M’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경계선으로 PC와 모바일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리니지2M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퍼플을 통해 모바일과 PC 등 플랫폼에 관계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PC버전은 모바일 기기보다 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보다 원활한 조작을 지원한다. 물론 모바일 기기로도 게임을 플레이 하기에 어려움 없는 조작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버 채팅과 혈맹 채팅, 보이스 채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지원하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때 게임 내 상황을 전달하는 ‘게임 데이터 연동 메신저’도 제공한다.

◇김택진의 ‘리니지2M’ 사랑…시장 기대감으로 반영 =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리니지2M에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리니지2M 출시를 알리는 광고에 직접 목소리로 출연하며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특히 9월 진행한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김택진 대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술적으로 ‘리니지2M’을 따라올

수 있는 게임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대표의 자신감이 통하더라도 한 듯 리니지2M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작인 리니지M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리니지M의 매출액은 599억 원으로 2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178억 원)보다 약 3.3배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리니지M이 2위와의 격차를 벌리며 모바일 게임 시장 독점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2M이 출시된다면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게임 시장 1, 2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바일 게임이 출시 초반 성적이 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동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인지도 높은 자체 IP 활용과 사전 예약자 수 700만 명을 넘기는 등 높은 관심으로 인해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며 “PC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고사양 그래픽을 지원해 PC 수요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LG U+ “내년 U+5G 3.0 출시… 5G 서비스 선도”

클라우드·AR·VR 결합  
교육·게임 등 서비스 확대

LG유플러스는 내년 클라우드와 AR, VR 등을 결합한 U+5G 서비스 3.0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경쟁 선도에 나설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U+5G 전파 발사 1년을 앞두고 황현식 PS부문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사옥에서 향후 서비스 중심 5G 시장 경쟁 주도를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서비스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5G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중 손쉽게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교육 등 새로운 U+5G 서비스 3.0을 선보인다. 클라우드와 AR을 결합해 자녀들의 영어 교육, 동화, 자연관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클라우드·VR을 결합해 PC 없이 고품질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VR게임 서비스 등이다.



LG유플러스 황현식(둘째 줄 왼쪽 네 번째) PS부문장 등 임직원들이 U+5G 전파 발사 1년을 앞두고 “5G 시장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기존 9대 서비스 역시 AR, VR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AR은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AR스튜디오 외에 제2의 AR스튜디오를 상반기 내에 개관할 예정이다. VR는 실시간 방송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현식 부사장은 “내년에는 5G 가입자 1000만 명 시대가 열리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5G 활용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객 생활과 더욱 밀접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고객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 SK C&C-아주대의료원

### 빅데이터 기반 의료 AI 연구 협약

#### ‘뇌출혈 영상판독 AI 모델’ 개발

SK C&C는 26일 아주대학교의료원과 ‘빅데이터 기반 의료 인공지능(AI) 공동 연구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3월부터 ‘뇌출혈 영상 판독 AI 모델’을 개발, 전문의 수준의 판독 정확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시험을 거친 후 응급 의료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SK C&C는 픽셀 단위로 형상을 구분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아주대 의료원은 1400여 명의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및 판독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했다. 또 아주대 의료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학습데이터 생성,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자문, AI 판독 결과 검증 등을 맡았다.

양측은 앞으로 영상 판독 AI 적용 분야를 뇌경색·뇌졸중 등 주요 뇌 신경계 질환으로 확대하고 의료영상·유전체 데이터 등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AI 신규 서비스 발



윤동준(오른쪽) SK C&C 헬스케어 그룹장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26일 ‘공동 연구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C&C

굴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본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와 SK C&C의 기술력을 결합한 성과”라며 “향후 양 기관이 연구 성과를 상용화해 AI 기반의 혁신적 의료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준 SK C&C 헬스케어 그룹장은 “뇌출혈 영상 판독을 시작으로 뇌 질환 중심 AI·빅데이터 기술 적용을 통해 국내 AI 의료 서비스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오픈소스 OS 플랫폼 함께 만들자”… ‘한컴구름협의회’ 발족

한글과컴퓨터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 ‘구름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한컴구름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컴은 협의체를 통해 구름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름 플랫폼 도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구름 플랫폼 배포판을 제작하는 한컴을 중심으로 안랩, 휴네시온, 이엑티브, 티론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또 순천향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30여 곳이 회원사로 참여했으며 구름 플랫폼 개발을 주

안랩·휴네시온·순천향대 등  
산·학·연·관 30여 회원사 참여  
‘구름 플랫폼’ 도입 활성화 추진

도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협의체에서는 구름 플랫폼 표준화 및 이슈 관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구름 플랫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구름 플랫폼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교류 및 협력, 공동 마케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구름 플랫폼을 도입하는 기업 및 기관들까지 협의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수렴과 개선점 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컴 관계자는 “공개 소프트웨어 글로벌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름 플랫폼과 연동해 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확대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핵심 애플리케이션인 리눅스용 워드프로세서 개발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인 만큼 구름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NHN페이코, 금융 통합조회 ‘마이데이터’ 출시

공인인증서 없어도 앱으로  
금융데이터 통합 조회

NHN페이코는 ‘페이코 마이데이터’를 출시하고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KEB하나은행,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웰컴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API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제휴 금융사의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던 모든 금융 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정보 통합조회, 데이터 내려받기, 데이터 영수증, 금융상품물로 구성된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신용 및 자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페이코 앱 내 금융 탭 ‘MY Data’ 메뉴에서 제휴 금융사와 보유 상품 조회 항목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와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사용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뇌전증 혁신신약〉

#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전역 직판 나선다

## 美 시판 허가 기념 간담회

세계 뇌전증 시장 54% 차지  
자체 혁신신약 직판 첫 사례  
12개 권역 110명 영업 인력  
내년 2분기부터 본격 판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혁신신약 ‘엑스코프리’ (성분명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2분기부터 4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엑스코프리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시판 허가 획득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엑스코프리는 2007년부터 직접 임상해서 직접 판매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온 약”이라며 “우리가 미국에서 자체 개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신약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 신청(NDA)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약이다. 성인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제로 21일(현지시간)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의 판매와 마케팅 역시 직접 나선다.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는 이미 3년 전부터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 현재 미국 전역에 출

###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개발 과정

|           |                                  |
|-----------|----------------------------------|
| 2001년     | 후보물질 탐색 시작                       |
| 2007년     | 美 FDA 신약 임상시험 신청(IND) 승인         |
| 2008년     | 임상 1상 시험 완료                      |
| 2015년     | 임상 2상 시험 완료                      |
| 2018년     | 임상 3상 완료<br>美 FDA 신약판매허가(NDA) 신청 |
| 2019년 11월 | 美 FDA 신약판매허가 획득                  |

※ 출처: SK바이오팜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

시할 준비를 마쳤다. 계획대로라면 엑스코프리는 2020년 2분기부터 현지 판매가 시작된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미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 전문가(세일즈 디렉터)를 채용했으며, 110명의 영업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조 사장은 “뇌전증 치료제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 영업망 구축이 용이한 분야”라며 “다른 회사들도 보통 100~150명 정도의 영업인력으로 미국 전역을 커버한다”고 설명했다.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5~15명으로 약 1%에 달한다. 특히 60세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평균 수명이 증가할수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뇌전증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61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33억 달러(약 3조 9000억 원)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약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사이즈도 확대, 2024년에는 41

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엑스코프리는 부분발작(뇌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되는 발작)과 전신발작(뇌 전체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발작)을 동시에 타겟하는 약으로, 미국 뇌전증 환자의 95%가 이에 해당한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스코프리는 1~3가지 뇌전증약을 복용해도 부분 발작이 멈추지 않는 환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개의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 위약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작 빈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발작소실’도 확인했다.

조 사장은 “뇌전증 환자에게 발작소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마케팅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SK바이오팜은 대한민국 최초로 FDA 승인 혁신신약 2개를 보유한 유일한 제약사란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셀트리온 램시마SC 유럽 출시 일정 (단위: 억 원, 2020년 기준)

| 출시 계획 |                 | 타겟 시장 규모(점유율 분포)      |
|-------|-----------------|-----------------------|
| 1분기   |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출시 | 4조7000(45%)           |
| 2분기   |                 | +1조7000(62%)          |
| 3분기   | 국가별 약가 등재 완료    | +2조7000(87%)          |
| 4분기   | 및 EU 기타 국가 출시   | +1000(89%) ※ 총 9조2000 |



## ‘램시마SC’ 유럽 판매 승인 점유율 20% ‘10兆 가치’ 기대

### 셀트리온 ‘프라임 시밀러’ 전략

### 50兆 TNF-α 억제제 시장 특허 출원 마치면 20년 독점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제 ‘램시마SC’의 유럽 승인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익성 확대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램시마SC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제형을 변경해 편의성을 높인 의약품으로, 바이오시밀러에서 한 단계 진화한 바이오베터로 통한다. 130여 개국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앞으로 20년간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시장을 독점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제품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램시마SC를 통해 이른바 ‘프라임 시밀러’ 전략을 구사한다. 1차 TNF-α 억제제(휴미라·엔브렐·레미케이드 등)를 처방받은 환자의 25%는 약물에 대한 내성으로 연간 2만 달러(약 23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2차 치료제를 써야 한다. 이런 환자들이 2차 치료제로 전환하기 전에 검증된 약효와 편의성을 지닌 램시마SC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램시마SC는 바이오베터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차 치료제보다 합리적

이지만 1차 치료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는 바이오베터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 1차 치료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프라임 시밀러’ 전략을 통해 수익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셀트리온은 이번에 허가받은 류머티즘 관절염(RA) 적응증 외에 염증성 장질환(IBD) 등 기타 자가면역질환 적응증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면 램시마SC의 시장 침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6조 4000억 원 규모의 유럽 주요 TNF-α 억제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유럽 전체 TNF-α 억제제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9조 2000억 원 규모의 시장에 램시마SC를 선보일 방침이다. 2022년부터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까지 진출해 전 세계 50조 원 규모의 TNF-α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프라임 시밀러 전략으로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해 램시마SC가 10조 원의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의 시판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서 다른 바이오시밀러와 차별화된 프라임급 위치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램시마SC가 회사의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12월 준비하는 영국 왕실 홍차

신세계백화점은 영국 왕실 홍차 브랜드 ‘포트넘 앤메이슨’에서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을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포트넘앤메이슨 본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상품은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백화점업계 “체험을 팝니다”

### 현대백 ‘코너스’·신세계 ‘자주테이블’ 등 집객 효과

백화점들이 속속 체험형 매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체험형 매장은 온라인 유통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의 장점이다. 이들 매장은 소비력이 높은 젊은 고객들의 발걸음을 매장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9일 판교점 3층에 편집숍 ‘코너스’를 신규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너스’는 나이 구분 없는 에이지리스(Ageless) 편집숍으로 잡화·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곳에는 지갑 만들기, 열쇠고리 제작 등 다양한 고객 클래스가 진행되는 가족 공방 ‘도쿨’, 캐시미어 머플러 만들기 등 뜨개질 강좌를 여는 ‘미스틱코티타’,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장식물을 만드는 ‘플라워온실’, 아동용 애착인형을 만들 수 있는

‘갤러리AnC’ 등이 들어선다.

울 1월 현대백화점이 압구정 본점에 선보인 와인전문 매장 ‘와인웍스’도 체험을 강조한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자주테이블’ 역시 체험을 상품 판매로 연결한다. 이 점포는 기존에 플레이팅된 사진이 담겨 있는 카탈로그 등으로 느끼던 간접 체험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식기류를 쓰며 골라볼 수 있는 ‘체험형 레스토랑’이다.

신세계의 뷰티 편집샵인 ‘시코르’도 체험을 중시하는 뷰티 마니아 사이에서는 성지로 꼽힌다. 시코르 강남점에는 ‘메이크업 셀프바’와 ‘헤어 셀프바’라는 독특한 공간을 갖췄다. 여기서는 판매 사원이 밀착에서 영업하는 일반 화장품 매장과 달리 소비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품을 체



올해 초 현대백화점이 압구정 본점에 선보인 와인전문 ‘와인웍스’ 매장.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험할 수 있게 유도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잠실점 ‘온앤더뷰티’ 매장에서 ‘뷰티 컨시어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에 맞는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테스트하고 추천해준다.

남주현 기자 jooh@

## 파리크라상,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4000여 곳 매장에 2020년까지

파리크라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2020년까지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웨이크썬 등 전국 4000여 개 매장에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생 등급제의 도입은 국내의 대표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크라상이 먹거리 안전에 앞장서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파리크라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각 매장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도입을 추진했다”며, “매월 범위를 확대해 내년까지 전국 4000여 개 매장



에 위생등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 등 3가지 위생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허리 튼튼해진 코스닥... 실적 뒷받침 우량기업 늘어

##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활성화 정책’ 1년

중견기업 기술특례상장제 활용·유니콘 기업 상장 가능  
시총 10위 종목 시장 비중 줄고 중·소형주 영향력 커져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기업들이 늘면서 코스닥시장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있다. 중·대형주는 증가하고 소형주는 감소해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형종목은 전년 동기(25일 기준) 71개사에서 올해 79개사로 소폭 늘었다. 1000억~

5000억 원인 중견기업도 같은 기간 462개사에서 올해 501개사로 크게 늘었다. 반면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347개사에서 334개사로 감소하면서 상하위 격차는 감소하고 중위권은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시장은 매년 부실기업과 불공정 거래 논란이 터지면서 코스피시장에 비해

| 코스닥 시가총액 구분 현황 |       |        |       |        |
|----------------|-------|--------|-------|--------|
|                | 2018년 |        | 2019년 |        |
|                | 회사수   | 시장 비중  | 회사수   | 시장 비중  |
| 5000억 이상       | 71개사  | 42.09% | 79개사  | 37.45% |
| 1000억~5000억 원  | 462개사 | 39.89% | 501개사 | 43.28% |
| 500억 미만        | 347개사 | 5.16%  | 334개사 | 4.53%  |

※출처: 한국거래소

시장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과 활성화 정책에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줄이고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했다. 일 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만

하용됐던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중견기업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규모와 혁신이 있는 유니콘 기업의 상장도 가능해져 다양한 업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8%에 달했지만 올해 12.99%로 감소했다. 반면 100위에서 600위까지는 37.23%에서 40.06%로 늘어나 중형주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600위 이하인 종목들의 비중도 15.24%에서 18.48%로 증가했다. 현재(25일 기준) 시가총액이 2조 원에서 5조 원 미만인 곳은 셀트리온헬스케어(7조2539억 원), 에이치엘비(5조2262억

원), CJ ENM(3조3639억 원) 등 6개사다. 1조 원에서 2조 원 미만인 곳은 휴젤(1조9071억 원), SK머티리얼즈(1조8490억 원) 등 19개사, 5000억 원에서 1조 원을 기록한 곳은 SKC코오롱PI(9984억 원), 아난티(9922억 원), GS홈쇼핑(9889억 원) 등 54개사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닥시장을 ‘테마주’ 집단이 아닌 시장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며 “특히 정책과 감독당국은 코스닥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 활동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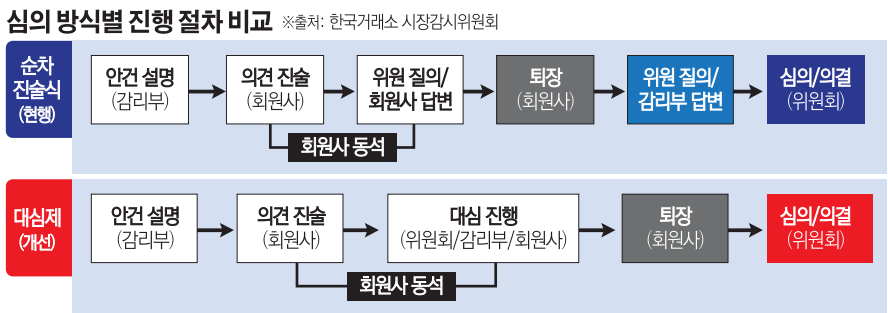
## 제이웨이 ‘경영진 교체’ 피에스엠씨 ‘적대적 M&A’ 코닉글로리 ‘소액주주 반란’

#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분쟁 ‘3社 3色’

코스닥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적대적 M&A부터 소액주주의 ‘반란’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다만 이들 분쟁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기업은 제이웨이, 피에스엠씨, 코닉글로리 등이다. 제이웨이는 현재 최대주주인 김병건 씨가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겠다고 임시주총을 소집한 상태다. 김 씨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현 경영진은 주주들의 피해는 철저히 외면한 채 무능한 경영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며 “선량한 소액주주와 힘을 합쳐 새로운 전면 경영진과 회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씨 측이 사전 조율이나 요구 사항도 없이 경영진 교체를 들고나와 대화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3대 주주이자 현 경영진의 우호 세력인 스티브홀딩스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최대주주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 4명의 횡령배임 금액이 596억

원이나 된다”며 “6개의 업체가 상장 폐지된 사실은 해당 공시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모두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다음 날(27일) 오전 9시 서울시 송파구 가동파이브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의결권 대결을 펼친다. 피에스엠씨는 1년 넘게 진행된 적대적 M&A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장내매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이에스브이는 올해 4월 다수의 자사 임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현 경영진과 의결권 대결을 벌였다가 패배했다. 당시 보유했던 주식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막힌 탓이다. 이에스브이는 이후 특별한 동향 없이 지내다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주주명부 열람은 우호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작업으로, 경영권 분쟁 시 가장 먼저 제기하는 소송 중 하나다. 피에스엠씨는 다음 달 13일 정동수 대표와 박을용 감사의 재선임 안건을 놓고 임시주총을 연다. 이를 두고 이에스브이의 자사 측 인사 선임에 앞선 전초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닉글로리에서는 소액주주인 정해종 외 5인이 공동보유 약정을 통해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 보유 목적은 ‘경영 참여’다. 이들은 “그동안 회사는 경영 상황에 대해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M&A 제안 등 수많은 발전 기회가 있었지만,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닉글로리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M&A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결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이웨이의 경우 양측에 대한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스브이는 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며 지리한 모습을 보여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코닉글로리의 경우 경영권 분쟁 제기 당사자가 소액주주 모임이며 지분도 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기영 기자 pgy@



## 거래소,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확대

제재심의 안전에 ‘대심제’ 도입  
회원의 의견 진술 등 방어권 강화

거래소 시감위가 제재 대상 상장사들의 소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를 전면 도입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전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심제(對審制)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현행 심의 방식은 안전 관련 제재 대상자가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사전 통지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진술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의 동등한 의견 진술 기회 등이 제한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한 제재 대상자의 제재 수용 거부로 인해 소송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때문에 시감위는 ‘순차 진출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 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 진술과 반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제재 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전에 대해 대심제를 실시하고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 심의기구) 모두에 적용하게 된다. 대심제 세부 절차는 △안건 설명(감리부)→△의견 진술(제재대상 회원사)→△대심 진행(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심의장에서 퇴장(제재 대상 회원사)→△의견 교환 후 최종 결정(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감위는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차기 제재심의 안전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5G 인프라 투자, 최대 실적에도 ‘기습 유증’

## 상장사 재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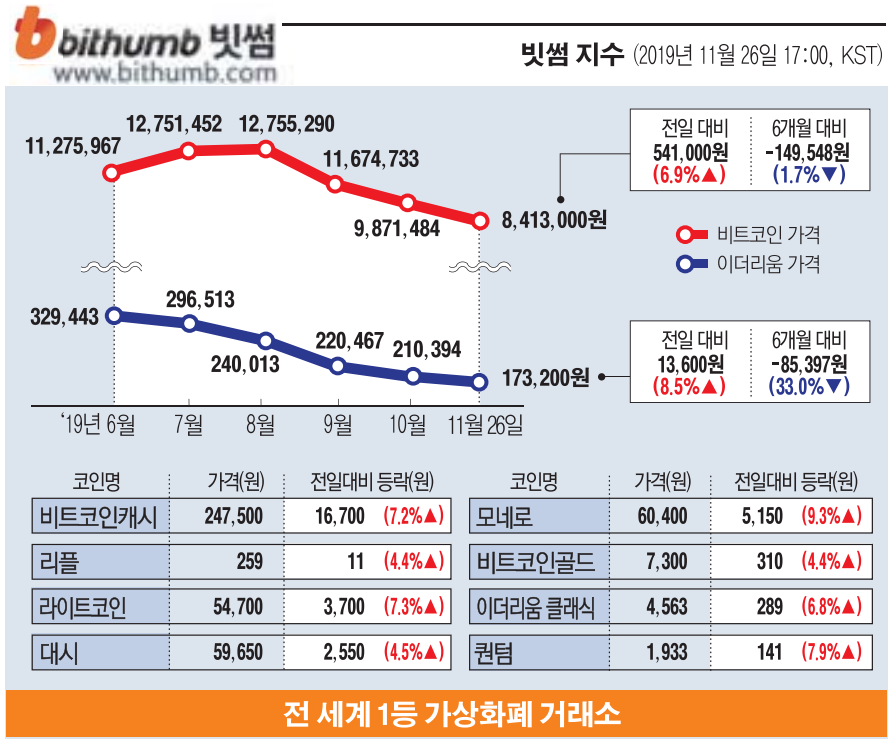
### 오이솔루션

올 매출 2115억·영업익 593억 전망  
부채비율도 낮아 현금 여력 있지만  
내년 해외시장 진출 대비 실탄 확보

오이솔루션이 지난달 8일 302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1차 발행 예정가액에 따른 증자금은 268억6000만 원이며, 자금 사용처는 △광소자 생산설비 확대(180억 원) △광소자·트랜시버 개발(80억 원) 및 사업 운영비(8억6000만 원) 등이다. 무엇보다 오이솔루션이 올해 국내 5G 인프라 투자 수혜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기습적인 증자 결정은

주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증권업계가 국내외 5G 인프라 투자로 올해를 기점으로 3년간 오이솔루션의 실적 황금기를 예상하는 만큼 이번 증자 결정은 물음표를 쏟아내고 있다. ◇넉넉한 살림 속 대규모 증자 = 에프엔 가이드에 따르면 오이솔루션의 2019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15억 원, 593억 원이다. 2020년과 2021년 예상치는 각각 2596억 원·671억 원, 2996억 원·755억 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 오이솔루션의 2018년 3분기 누적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0억 원이었던 반면 2019년 3분기 누적은 295억 원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40%대 초반에 불과하다. 외부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국내외 정부와 고객사의 5G 관련 장비 투자 및 납품이 애초 예상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 호실적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고종민 기자 kjm@

◇‘보수적으로 보달라?’ = 회사 측의 미래 전망은 보수적이다. 오이솔루션은 2020년 이후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5G 투자 공백기를 예상한다. 내년 이후 매출처는 미국 등 해외시장이다. 대외적으로 밝히는 입장은 해외시장 진입과 같은 신규 매출처 확보에 실패하면 매출 하락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내부 우려는 특정 고객사로의 매출 집중과 해외 매출 부진이다. 오이솔루션은 몇몇 특정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으며 상위 3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2018년 52.0%에서 2019년 3분기 79.4%까지 확대됐다. 특히 2019년 3분기의 경우 1위 매출처인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은 2018년 26.4% 대비 63.4%로 크게 상승했다. 국내 5G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신제품인 10G·25G 트랜시버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고종민 기자 kjm@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KB 증권

# ‘입찰 무효’ 한남 3구역… 강북 최대 재개발 ‘시계 제로’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상황에 놓였다. 과도한 설계 변경과 불법 홍보, 조합원 금전 혜택 등 과열된 수주 경쟁이 불러온 결과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수주전에 뛰어든 3개 건설사는 검찰 수사가 지 받게 됐다.

해당 조합은 입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상보다 강경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가뜰이나 얼어붙은 주택정비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입찰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범위반 사안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 한남3구역 시공 입찰 건설사별 주요 제한

| 건설사  | 단지명         | 주요 제한                                                                        |
|------|-------------|------------------------------------------------------------------------------|
| 현대건설 | 디에이치 더 로얄   | ·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원 보장<br>·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분양가 50% 이상 할인                           |
| GS건설 |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 ·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시), 조합원 분양가 3500만원 이하 제시<br>· 이주비 LTV 90% 보장 |
| 대림산업 | 아크로 한남 카운티  | · 임대아파트 제로 단지<br>·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 대비 최대 할인                                     |

## 국토부·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사항 20여건 수사의뢰
- 도정법 제132조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
- 사업비·이주비 등 관련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 직접 제공
-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 재산상 이익 약속에 해당

##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 시공사 선정과정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수사 결과 바탕 입찰 참여 3개사 대상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이행

## 한남뉴타운 구역별 위치도



## 불법 홍보 등 수주 경쟁 과열에 참여 건설사 3곳 검찰 수사 시공사 재선정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 사업 차질 불가피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은 “아직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정조치 요구에도 조합은 기존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달 15일 시공사 선정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반약 조합에서 현재 시공사 입찰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도정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조합이 입찰을 강행하더라도 한남3구역의 사업 속도는 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 규모뿐 아니라 한남 2·4·5구역으로 이어지는 한남뉴타운 재개발의 상징으로 의미가 큰 사업지이다. 그런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가뜰이나 위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이 재건

축·재개발사업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번 발표로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보여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허위 홍보나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현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다스리겠다는 의도로, 앞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은 예전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서울서 아파트 1채 사는데 10.9년 걸린다

### 가구소득, 집값 상승률 못 따라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아파트를 장만하기까지 11년 가까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KB아파트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지수는 10.9년으로 전분기보다 0.1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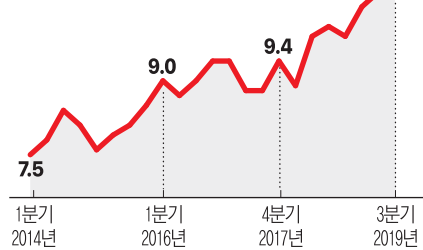
KB아파트 PIR은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다. 중간 수준의 연소득 가구가 대출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역은 아파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3분기에 나온 10.9년은 KB부동산이 KB아파트 PIR 지수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를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졌다는 의미다. 작년의 경우 3분기(10.1년)만 10년을 웃돈 반면 올해는 1분기(10.5년), 2분기(10.8년) 모두 10년을 넘어섰다.

PIR 지수가 높아진 것은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가구소득 상승 속도보다 빠르기 때

### KB아파트 PIR지수 추이

※출처: KB부동산



문이다. 올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은 5726만 원으로 전분기(4690만 원)보다 22.1% 올랐다. 대출 담보로 잡힌 아파트 중위값은 2분기 5억500만 원에서 3분기 6억2250만 원으로 23.3% 상승했다. 가구소득이 ‘천만 원’ 단위에서 움직일 때 아파트 중위값은 ‘억 원’ 단위로 켄중 댜 것이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대광’ (대전·대구·광주) 아파트값이 실물경기과 괴리된 채 상승했다”며 “다만 집값 추가 급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PIR 지수 역시 계속 오르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기업 PR>

## 120㎡에 방 3개?… 달라진 프리미엄 아파트

### 대림산업 고급 브랜드 ‘아크로’ 방 개수 줄이고 주방·수납 늘려

“전용 120㎡ 타입에 주로 배치했던 방 4개를 3개로, 전용 59㎡ 타입은 방 3개를 방 2개로 각각 줄여 수납과 주방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크로 갤러리’에서 리뉴얼한 아파트 고급브랜드 ‘아크로(ACRO)’와 새로 개편한 상품을 공개했다. 21일부터 시작한 일반인 관람에 앞서 프레스 행사를 연 자리였다.

대림산업이 고급 브랜드로 내세우는 ‘아크로’는 1999년 론칭했다. 2016년에 준공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리뉴얼 브랜드를 적용한 바 있지만 로고 디자인부터 상품 개발까지 새롭게 바꾼 리뉴얼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대림산업은 상품을 개편하면서 개인 생활 공간, 수납공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방 개수를 줄여 주방과 수납공간을 확대해 공간감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전용 59㎡ 타입의 방 개수는 3개, 전용 120㎡ 타입의 방 개수는 4개로 구성하지만 이번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방 개수를 각각 2개, 3개로 줄였다. 공용 화장실도 욕조를 빼고 세면대만 설치해 단순화했다. 이 역시 주방·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구상한 것이다.

전용 120㎡ 타입의 경우 방 한 개가 줄어든 만큼 사용자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더 확보했다. 호텔을 연상케 하는 구조로 부부가 각자 프라이빗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크로 갤러리는 21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지정 위법”

파기환송심 “카페베네, 사업자 선택의 자유 박탈… 필수용품 업체 지정은 적법”

카페베네가 가맹점 인테리어 기본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카페베네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으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 원 처분을 했다.

당시 카페베네는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지정했다. 또 KT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가 내도록 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두 가지 모두 부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카페베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휴비용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인테리어 시공, 설비·기기·용품 공급 부분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인테리어 시공은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원고나 특정 업체만을 시공업체로 지정해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커피 업종 가맹사업에서도 인테리어 시공 전부를 일괄해 가맹본부와만 거래하도록 하고, 사후에 변경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가맹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까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비·기기·용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필수적 품목에 대한 구매 강제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커피 산업 성장과 맞물려 5년 만인 2013년 매장 1000호 점을 내는 등 급성장했다. 2012년 말 기준 매출 2207억 원, 영업이익 66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해외 1호 점인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점, 2호 점인 중국 베이징점을 냈으나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지난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카페베네는 9개월 만에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오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성동구청 세무2과 직원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하루 앞둔 26일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SNS에 상사 비방한 직원 해고 정당”

법원 “특정인 조롱… 명예 훼손”

익명 커뮤니티 ‘대나무숲’에 직장 상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더불어 A 씨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사에서 1인 시위를 하자 ‘근거없는 사실로 회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며 추가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A 씨는 2017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 임원 등을 제외한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대나무숲’을 개설했

으며, 이곳에 B 씨 등을 비방하는 5건의 글을 올렸다. 이를 알게 된 B 씨는 삭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냈으나 A 씨는 다른 아이디로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7월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하기 위해 장작소설 형태로 게시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도록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다양한 기관 출신의 구성원들이 함께 근무하는데 A 씨가 특정 임직원과 출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A 씨는 풍자와 비판 목적이 라고 하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충용 기자 deep@

## 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GBC 건축 허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105층 국내 최고층〉

내년 상반기 착공 2026년 준공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서울시가 9개월 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축을 허가했다.

서울시는 26일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건축 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와 국방부, 서울시는 19일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최종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건축 허가과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했

현대자동차그룹 GBC 위치도



다.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GBC 신축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가능토록 함께 고민해 왔다.

이번 서울시의 건축 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만 남았다.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GBC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도록 잔여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작전제한사항에 대한 현대차의 해소 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GBC 신축사업은 지하 7층~지상 105층(569m) 규모로 제2롯데월드보다 높아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에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예정 기간은 2020년 상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의 건축 허가로 국가적 차원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 미래 신산업의 빛을 밝히다

K-SURE는 무역보험으로 항공산업을 비롯하여  
우리기업의 미래 新성장산업 진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제 9회 K-SURE 대학생 광고공모전 대상 수상작  
(조선대학교 조은이)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보안·고객 신원 확인' 국제 기준 마련

## 코인 거래소 운영 더 까다로워진다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의 운영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가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국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거래소 관리 제도가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마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기본 요건은 보안과 고객 신원 확인 = 가상화폐 거래소인·허가제가 골자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가상 입출금 실명 계좌)' 발급이 필수 요소이며, 정보 보안을 위해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실명 입금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임시방편으로 쓰던 입금용 법인 계좌를 더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별집계좌'가 사라지는 셈이죠.

가상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인데요. 이미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불안해진 신규 사업자들 = 특금법의 주된 내용이 거래소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실명 입금금 가상계좌 발급인데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고객은 반드시 입금과 출금을 같은 계좌로 사용해

## 가상자산 특금법 통과 때 달라지는 것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 시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실명확인 입출금 가상계좌 발급 받아야 함**

- 가상계좌 발급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4곳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받아야 함**

- ISMS인증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의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통일**

- 정부와 업계 등 용어 정리로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 전망

**입출금 실명계좌·ISMS 인증 필수**  
**가상화폐 '특금법' 국회 정무위 통과**  
**은행, 정부 부정적 인식에 제후 꺼려**  
**신규 거래소 사업 존폐 위기**

**크립토크페어, 거래소 종합 등급 발표**  
**국내 A등급 없이 코인원 등 5곳 'B'**

야 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고객마다 입출금용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하죠. 현재 실명 입금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4곳뿐입니다.

금융당국은 공개적으로 실명 가상계좌 발급을 막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행들은 4곳 이외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입출금 가상계좌 발급을 제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에게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는 것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평판 하락이나 비판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금법 이후 가상계좌 발급 제후를 못

한 거래소들은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신규 사업자들은 남은 시간 가상계좌 발급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 현재 수준은 =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평판이 궁금해집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 관련 통계 사이트를 운영해 온 '크립토크페어'는 올해 3분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 등급을 발표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거래소는 단 한 곳도 A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최고 등급인 AA등급은 제미니(Gemini)와 잇빗(itBit), 코인베이스(Coinbase)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에선 고팍스, 코인원, 코빗, 업비트, 후오비코리아 등이 B등급을 받았 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안 부문에서 코인원과 고팍스가 각각 전체 3위(17.4점)와 4위(16점)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보안 부문 전체 1위는 19.9점을 기록한 미국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참고 수준으로 봐야 할 텐데요. 크립토크페어가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평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hur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시장 이모저모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함에 따라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구글 검색량이 많이 증가했다.



##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반감기' 검색 증가

비트코인 가격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주 비트코인 관련 구글 검색이 증가했다고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구글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검색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에 육박했던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검색 순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가나 등 아프리카 3국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관련 검색어 '비트코인 반감기'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로 전망되는 반감기 전에 새로운 강세장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 "이더리움 내달 업데이트, 초당 3000전 처리"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이스탄불 업데이트가 성공한다면 이더리움은 초당 3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업그레이드 중 일부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는 1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부테린은 이더리움 가상화폐 공간이 직면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가 트랜잭션 속도라고 지적해 왔다. 부테린은 이스탄불 업데이트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기술로 초당 3000건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봤다.

## 트라발라, 호텔 예약 '부킹닷컴'과 제휴

블록체인 여행 예약 플랫폼 트라발라가 여행 예약 서비스 부킹닷컴과 제휴해 가상화폐를 이용해 예약 가능한 호텔이 크게 늘었다고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라발라는 부킹닷컴과 호텔 예약 플랫폼을 통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전 세계 9만 개의 숙소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트라발라는 10월 말부터 카르타노와 스텔라를 여행 예약을 위한 결제 옵션으로 추가함으로써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총 20가지의 디지털 통화 결제가 가능해졌다.

김우람 기자 hura@



## 지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 안전한 전기사용에서 출발합니다



**건물 신증축시**

철근이나 비계 등이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크레인 작업시**

전력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굴삭기 작업시**

지하의 전력 케이블 매설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삿짐 운반시**

주변의 전력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끊어진 전력선 발견시**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전기문의 및 고장신고는 국번없이 123**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sub>yd</sub>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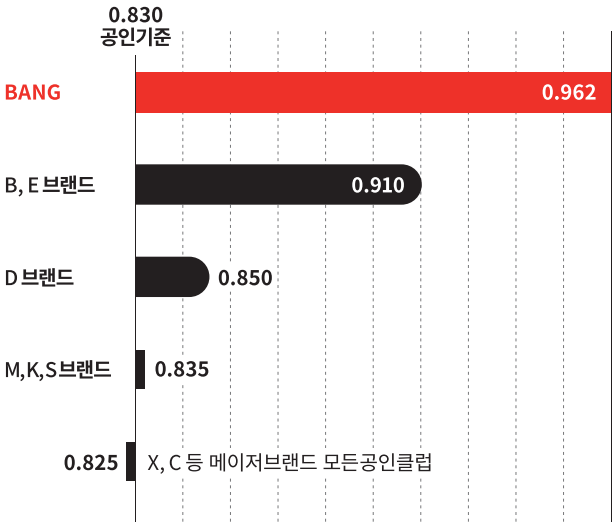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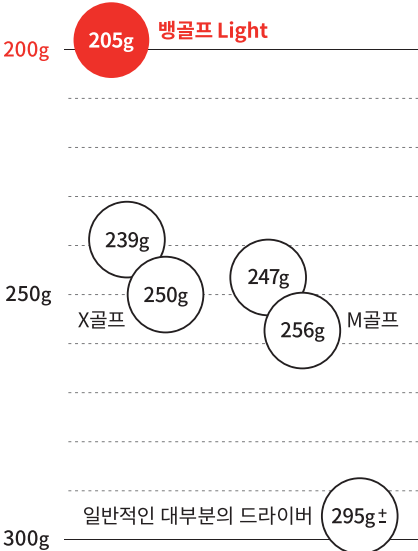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               | BANG Light                             | 타사                             |
|---------------|----------------------------------------|--------------------------------|
| 드라이버 사양 종류    | 999,000가지                              | 확실적인 몇가지                       |
| 드라이버 무게 종류    | 205g ~ 325g까지 120가지                    |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
| 드라이버 강도 종류    | XXX ~ R6까지 36가지                        | S, SR, R, L 등 몇가지              |
|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 XXX ~ R6까지 36가지                        | S, R 두가지 안팎                    |
| 아이언무게(9번 기준)  | 남 333g<br>여 312g                       | 남 351g ~ 395g<br>여 326g ~ 368g |
| 아이언 샤프트 종류    | 0.335 inch 최초<br>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br>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
| 헤드 무게 조정      |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br>납을 사용하지 않음       |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
| 드라이버 100yd 골퍼 |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br>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

# “쉽고 편리한 보험 앱으로 동남아 新시장 개척”

류준우 보맵 대표 “한국형 보험 인프라 전파”

‘보맵’ 비대면으로 보험 정보부터 가입·관리까지  
태국 로컬보험사와 JV 설립 등 글로벌 공략 박차

“한국의 IT기술력을 갖고 동남아 보험 시장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

26일 만난 류준우 보맵 대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은 한국의 오프라인 단계에서 앱을 통해 보험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아직 다들 어지르지 않은 보험 시장을 두고 현지화에 맞게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류 대표는 2015년 11월 비대면으로 보험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보맵’을 창업했다. 보맵은 B2C 앱으로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는 “보맵은 소비자들이 보험 정보를 얻고 확인, 청구, 구매까지 할 수 있다”며 “비대면 보험 유통 플랫폼으로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보맵은 동남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아직 보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예컨대 국내 시장은 자동차 보험이 의무로 지정돼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보맵은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현지 시장에 맞는 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선 이미 성과도 나오고 있다. 태국의 경우 로컬 보험사가 조인트벤처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기간 중 류준우 대표가 동행해 현지에서 처브 그룹의 태국법인 ‘처브 태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IT솔루션을 제공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에 선정돼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류 대표는 “해외는 국내와 다르게 시장 환경이 다르다”면서 “동남아 지역에는 보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자동화하는 단계가 미미해 현지화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접근을 통



류준우 보맵 대표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향후 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 보험의 플랫폼을 확장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가지고 동남아 시장에 집중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도 소홀해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20~30대 젊은 층에 보험이라는 서비스를 진숙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귀가 안심보험 등 소액으로 가입하고, 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목표다.

연말에는 소비자들이 보맵을 통해 보험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모인 유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정보를 체계로 작성해 제공할 방침이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합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포부다.

조성준 기자 tiatio@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유기연 인성산업 부회장, 권대옥 휴넷 회장

‘2019 연세MBA 경영인상’

최규복·유기연·권대옥 수상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총동창회가 26일 ‘2019 연세MBA 경영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로는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유기연 인성산업 부회장, 권대옥 휴넷 회장이 선정됐다.

연세MBA 경영 부문상에는 정상진 무일화성 대표, 이상원 ANC SCM 부사장이 선정됐으며, 마케팅상은 넬슨 허 TCC Global 대표, 창업스타트업상은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4차산업 IT상은 김영혁 코리아세븐 상무에게 돌아갔다.

R&D 신제품상은 박동복 제일씨드바이오 대표, 기업문화상은 김진정 전 아놀자F&G 대표, 인재개발상은 이종관 플러스A 아카데미 대표, 사회공헌상은 이준환 구미시립요양병원 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총동창회는 27일 열리는 연세MBA에서 ‘2019 연세MBA 경영인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강달호(왼쪽부터) 현대오일뱅크 대표, 이영우 현대코스모 대표, 다나카 일본 코스모오일 대표가 감사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오일뱅크

현대코스모, 창립 10주년 기념식

현대오일뱅크는 일본 코스모오일과의 합작법인 현대코스모가 25일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와 다나카 일본 코스모오일 대표를 비롯한 양 사 직원들이 참석했다.

현대코스모는 현대오일뱅크와 일본 정유사인 코스모오일이 2009년 11월 5:5 합작으로 설립한 석유화학사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부음

▲유정화 씨 별세, 이방호(개인사업)·원호(베스트토yota 대표)·현주 씨 모친상, 구자열(LS그룹 회장) 씨 장모상, 주상욱·박은덕 씨 시모상 = 25일,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43-210-5444

▲서명술 씨 별세, 허태열(전 대통령 비서실장) 씨 부인상, 서희(하나카드 차장)·상희(주부) 씨 모친상, 김연수(㈜플래디스 부사장)·조석환(LG전자 책임연구원) 씨 장모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30분, 02-3410-3151

▲정세원 씨 별세, 정지용(kbc광주방송 차장)·명선(나주봉황초교부설유치원 교사)·현숙 씨 부친상, 정혜원(광주 북구청 동림동 복지담당) 씨 시부상, 윤철(사업)·이승철(사업) 씨 장인상 = 26일 오전,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62-973-9166

‘2019 녹색건축 한마당’

오늘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녹색건축 기술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 서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7~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9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를 연다. 녹색건축은 착공에서부터 건축물까지 자연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 등은 녹색건축을 널리 알리기 위해 9회째 녹색건축 한마당을 열고 있다.

‘녹색을 스마트건축으로’를 표어로 삼은 올해 행사에선 여러 녹색건축과 스마트건축의 융합 사례가 소개된다. 27일 개막식 기조연설은 ‘신기후 시대의 기후를 위한 새로운 도시 전략’을 주제로 존 번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어 건축 정보 혁신, 제로 에너지 빌딩(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 등 녹색건축과 스마트건축에 관한 여러 포럼·세미나가 열린다. 녹색건축 한마당은 홈페이지 등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 LH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어워드’ 본상 수상

54개국 450개 기관 참여

‘디지털 혁신’ 분야서 영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9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에서 디지털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올해로 9회째다. 국가 및 도시 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자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행사다.

올해는 도시·혁신 아이디어·디지털 혁신·도시 환경·이동성 등 총 5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54개국 450개 기관이 참여했다. LH는 플랫폼 도시인 세종 행복도시로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본상을 받았다.

LH가 추진 중인 세종 행복도시는 도시 내 데이터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이용한 다. 위급상황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도시



한병홍(오른쪽 네 번째) LH 도시재생본부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9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에서 디지털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상황 관제 플랫폼, CCTV·통신망 등 디지털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지능형 인프라관리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LH는 작년 12월 세종 스마트시티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기준(ISO37106)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류동춘 LH 스마트도시개발처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 어워드 수상을 계기로 제2·3의 스마트시티 인증사업 발굴과 글로벌 스마트시티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조상형 ◇국장급 승진 △감사실장 이흥식 △기획조정실장 조상형 △경영관리국장 정수환 △광고산업진흥국장 김태현 △공익사업국장 유형근 △신성장사업국장 박상규 △중소기업지원국장 심현성 △영업2국장 나병태 △광주지사장 오철현 △대전지사장 최규신 ◇팀장급 전보 △경영지원팀장 신현호 △영업1국 미디어솔루션팀장 함현호 ◇팀장급 승진 △감사팀장 김지숙 △회계팀장 조봉산 △광고회관파트장 심동일 △방송회관파트장 김진천 △연수원파트장 문의주 △진흥사업전략팀장 이지연 △공익광고팀장 한지석 △신성장전략팀장 권기진 △데

이터사업팀장 장준천 △미디어지원팀장 이호정 △영업1국 광고영업2팀장 정일환 △영업2국 광고영업2팀장 조준희 △영업2국 광고영업3팀장 황규영 △대구지사 영업파트장 최해광 △광주지사 전북지소장 정재남

◆LS그룹 [㈜LS] ◇전무 승진 △심현석 경영기획부문장 △구동휘 Value Management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 △홍석창 미래원 원장 ◇이동(전입) △조 의제 상무 (現 LS글로벌 IT사업부장 → ㈜LS IT혁신팀장) ◇전무 승진 △이인호 기술개발본부장 CTO △주완섭 경영지원본부장 CSO ◇상무 승진 △김우태 소재·Busduct사업본부장 ◇신규 이사 선임 △박현호 LSCI법인장 △장동욱 산특사업부장 △최해은 노경·Compliance

부부장 CLO △김영규 기기사업부장 △고의근 해저Global영업부부장 ◇이동(전입) △백인재 이사 (現 LS전선아시아 베트남·미얀마지역부부장 → LS전선 배전·가공사업본부장) ◇사장 승진 △박용상 사업·DT총괄 CDO ◇부사장 승진 △오재석 글로벌사업본부장 ◇전무 승진 △김동현 재정부부장 CFO ◇신규 이사 선임 △박우범 전력솔루션남부사업부장 △채대석 비전실장 ◇외부 영입 △이건욱 상무 전략기획부부장 CSO ◇상무 승진 △민경민 제련소장 △구본권 사업전략부부장 ◇부사장 승진 △구본규 경영관리 COO ◇상무 승진 △이현구 트랙터연구소장 [가온전선] ◇전무 승진 △정현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승진 △김명균 재정부부장 ◇신규 이사 선임 △박종구 통신

영업부부장(유통영업부부장 겸직) ◇신규 이사 선임 △김상무 Trading부부장 △김상훈 해외영업부부장(미래전략실장 겸직)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CEO 선임(이동·전입) △구본혁 부사장(現 LS니코동제련 사업본부장 →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CEO) [에스코] ◇신규 이사 선임 △문만영 기획재경부부장 CFO ◇신규 이사 선임 △김석민 스마트팩토리컨설팅사업부장 ◇이동(전입) △김종필 이사(現 LS전선 에너지사업본부장 → LS전선아시아 베트남·미얀마지역 부부장(LS-VINA법인장 겸직))

◆한화투자증권 ◇상무 승진 △김선철 △이덕출 ◇상무보 승진 △김진희 △남재호 △신충섭 △유재석 △유창민 △이재인 △한성욱

유럽은 지금



안 병 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21년까지만 화석연료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유럽투자은행. 대규모 화력 발전소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더 이상 EIB의 투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6월 130억 달러 정도의 석탄 및 정유업체 투자에서 손을 뗐다. 기후위기는 인류 모두가 공동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지만 말로만 떠드는 각 국의 정책 결정자. 스웨덴의 10대 소녀 톤베리는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그들을 질타했다.

룩셈부르크의 한적한 골목에 소재한 유럽투자은행(EIB). 지난 15일 아주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2021년까지만 화석연료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화력 발전소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더 이상 이 은행의 투자 지원을 받지 못한다. EIB는 1958년 설립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로 있는 개발은행이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이탈리아 등 EU 주요 4개국 이 각각 납입 자본금의 16.1%씩 투자했다. 총 납입 자본금은 2432억 유로가 조금 넘는다. 자본금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개발은행으로 국제자금 시장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주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투자의 90%는 EU 회원국, 나머지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에 있는 EU 회원국의 과거 식민지 국가들을 지원해준다. 폴란드와 헝가리처럼 전력 생산에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국가는 지난 15일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표결에서 졌다. EIB의 이런 결정은 EU가 계속해서 이

행 중인 ‘녹색바람’의 하나이다.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속 가능한 금융 기준을 정하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 경제개발과 환경, 사회발전의 조화를 꾀하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 용어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집행위원회는 특정 투자를 지속가능한 투자로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 재계와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1년이 지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기후변화(이하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의 대처와 적응, 수질보전과 오염 예방, 재활용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녹색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어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사례를 들었다. 현재 법안 제정 과정의 하나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연말까지 법안 초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미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은 EU의 이런 결정을 주시 중이다.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면 연기금 투자 결정에서 당연히 이를 고려해야 한다. 노르웨

이 국부펀드는 지난해 말 1조 달러를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미 지난 6월에 130억 달러 정도의 석탄 및 정유업체 투자에서 손을 뗐다. EU의 녹색투자 기준 결정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파리 기후변화조약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내년 11월 초면 미국은 이 조약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중국이나 인도가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에 세계 각 국가 공동 대응하려 할 리 만무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EU의 선도적 역할은 다른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시장을 운영 중이다. 항공 산업이나 중공업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대기업들 연간 할당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범위 안에서 부족하면 이 시장에서 추가 구입을 하고 남으면 팔 수 있다. 다음 달 1일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우

르줄라 폰테라아리엔은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적인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은 5년 전에 비해 의석 비율을 4.3%포인트 늘려 전체 의석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3분의 2 정도의 유럽 시민들은 기후위기에서 EU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한다. 개별 회원국 차원의 정책 대응이 기후위기 대처에 매우 미흡함을 알고 있기에 시민들은 EU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기후위기는 인류 모두가 공동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16세의 스웨덴 중학생 그레타 톤베리는 지난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말로만 떠드는 각 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질타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인 원자력 폐기정책조차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가 극심했다. 2018년 우리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를 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인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임을 보여줄 수 있다.



성아영의  
발명 이야기

대구가톨릭대 바이오메디칼대학 교수

사전적으로 정의된 발명이라는 개념은 과학적 창의를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을 창조하는 것으로, ‘invention’의 어원인 라틴어의 ‘inventio’는 ‘생각이 떠오르다’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발견의 사전적 정의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는 문제 같아 보인다. 대부분의 발명은 발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발명의 모티브는 그 현상을 얼마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 현상에서 아이디어의 착상이 떠오르게 되고, 실험과 연구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내의 불편 개념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곧 발명인 것이다. 일례로 인류의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준 불의 존재는 발견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에 성냥이 들어온 것은 1880년 개화운동이동인(李東仁)이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 처음이었으나, 일반인에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일병탄 직후 일제가 인천에 ‘조선인촌(朝鮮人村)’이라는 성냥공장을 세우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부터였다. ‘인천에 성냥공장’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성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작은 소나무 가지에 유황을 찍어서 딱딱하게 말린 ‘석류황(石硫黃)’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마찰에 의해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화로 속에 집어넣어야 불이 붙는 것이어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선조들은 성냥에 대한 말의 표현이나마 일본식 표현인 ‘인촌’ 대신에 ‘석류황’을 고집했고, 바로 이 말이 빨리 발음되다 보니 오늘날의 ‘성냥’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ライター에 밀려 사양화의 길을 걷은 지 오래지만, 성냥의 발명은 인류에게 진정한 의미의 불을 가져다주었다. 프로메

테우스가 신(神)에게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전해주는기는 했지만, 성냥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이 일단 꺼지면 부싷돌을 수차례 두드리고 나뭇가지를 힘들게 비벼대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오죽했으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불씨를 꺼뜨리는 며느리를 내쫓기까지 했을까? 아무튼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를 가져다 준 성냥의 역사는 1669년 독일인 브란트가 ‘인(燐)’이라는 물질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영국의 보일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후 인을 발화제, 즉 성냥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너무 쉽게 불이 붙고 위험해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했다. 오늘날의 성냥은 이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1827년, 영국의 약제사였던 위커가 화학실험을 하던 중 우연히 개발하게 되었다. 그는 연소산칼륨과 황화안티몬을 섞어 전에 발랐는데, 이 또한 별 특징이 없어 천 조각을 난로 뒤쪽에 던져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불이 붙는 것이었다. 위커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열이 없어도 이 혼합물에 마찰을 가하면 불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이러한 천들을 잘게 썰어 작은 나무막대 위에 감아서 말린 뒤 이를 유리조각이 묻어 있는 종이에 그어서 불을 붙이는 형태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성냥을 영어로 ‘매치(Match)’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성냥개비와 마찰종이가 항상 쌍으로 어울려 있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1833년 독일에서는 인의 일종이면서 발화점은 인보다 높은 황린(黃磷)을 이용, 유리종이가 없어도 어떤 물체에 비비기만 하면 불이 붙는 성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카우보이들이 종종 성냥을 그들의 구두에 슬쩍 그어 담뱃불을 붙이는 장면이 등장하곤 하는데, 바로 이 성냥이 황린성냥에 해당된다. 생각해보면 발견은 이렇게 발명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무심코 지나쳤던 오늘 하루에도 누군가는 그 현상의 의미를 넘어 필요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필요가 발명이라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자로서의 우리의 하루는 무엇을 발견하였을까?

☆ 호라티우스 명언  
“역경에 처했다고 삼심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라.”  
로마의 서정·풍자시인. 브루투스를 따라 종군했다가 패해 귀국한 후로 부친의 재산이 몰수되어 생활이 궁핍해 시작(詩作)에 착수하였다. 그의 ‘서정시집(Odae)’은 로마 서정시의 완성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기원전 65~기원전 8년.  
☆ 고사성어/이상지계(履霜之戒)  
서리가 내리는 것은 머지않아 얼음이 얼 징조이므로 징조를 보고 미리 화란(禍亂)을 방지해야 한다는 경계를 뜻한다. 원전은 당서(唐書).  
☆ 시사상식/위너 소비자(Winner Shopper)  
상품 구매에 있어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과정과 의미를 부여해 ‘덕후’(일본어인 오타쿠(御宅)를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 부르는 말인 ‘오덕후’의 줄임말)라 불리는 마니아층을 뜻한다. 관심 있는 분야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붓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기자수첩



고 대 영 자본시장1부/kodae0@

돈,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

매출이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화두였던 임상 실패와 맞물린 제약바이오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실제로 암 치료제 등을 개발 중이지만 누군가는 비누를 팔고, 누군가는 선크림을 팔고 있었다. 단 1억 원의 수익이 남을지라도 R&D에 쓸

수 있음에 다행스러워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외도(?)를 두고 다소 머쓱해 했지만, 이런 민망한 일이 아니었다. R&D 하나만 보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회사들과 달리, 적어도 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현재의 자립성이 회사

의 존속으로 이어짐을 강조했다. 거대한 투자를 받고, 이후 임상이 성공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결말만 보고 전력질주하기엔 위험성이 크다. 신약의 경우 후보물질 하나를 찾는 데만 10년에서 17년까지도 걸린다. 이 말에 동의한다. 결코 투자와 R&D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적 얘기이기에, 그것만 바라볼 순 없다는 것이다. 돈이라는 거, 돌고 돈다지만 얻을 땐 자기 스스로가 돌아버린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 기업들은 기초체력을, 투자자들은 현실성을 챙길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외부에서만 R&D 자금을 바랄 순 없다.” 이게 현장의 결론이다.

|                                                                                                                                                                                                                                                                                                                                                                                                                      |                                                         |                                              |                                                                        |                                              |                                                                                                                                                                                                                |
|----------------------------------------------------------------------------------------------------------------------------------------------------------------------------------------------------------------------------------------------------------------------------------------------------------------------------------------------------------------------------------------------------------------------|---------------------------------------------------------|----------------------------------------------|------------------------------------------------------------------------|----------------------------------------------|----------------------------------------------------------------------------------------------------------------------------------------------------------------------------------------------------------------|
| <div><div><div><div><div><span></span></div></div><div><div><span></span></div></div></div><div><div><div><span></span></div></div><div><div><span></span></div></div></div><div><div><div><span></span></div></div><div><div><span></span></div></div></div></div></div> <div><b>이투데이</b></div> <div><small>2010년 10월 4일 창간&lt;일간&gt;<br/>홈페이지 <a href="http://www.etoday.co.kr">www.etoday.co.kr</a></small></div> | <b>社是</b><br><b>正道言論</b><br><b>經濟報國</b><br><b>未來指向</b>  |                                              | 발행·인쇄인 <b>김상우</b>   편집인 <b>김상철</b>   논설실장 <b>추창근</b>   편집국장 <b>김덕현</b> |                                              | <b>주소</b><br>06900 서울시 동작구<br>여의대방로 62길 1<br><b>대표전화</b><br>(02)799-2600<br><b>팩스</b><br>(02)784-1003<br><b>광고문의</b><br>(02)799-2601 / 2602<br><b>구독·배달</b><br>(02)799-2684<br><b>구독료</b><br>월 15,000원 1부 800원 |
|                                                                                                                                                                                                                                                                                                                                                                                                                      | <b>논설실</b><br>자본시장1부<br>산업부                             | (02)799-2669<br>(02)799-2647<br>(02)799-2644 | <b>정치경제부</b><br><b>자본시장2부</b><br><b>중기IT부</b>                          | (02)799-2663<br>(02)799-2648<br>(02)799-2646 |                                                                                                                                                                                                                |
|                                                                                                                                                                                                                                                                                                                                                                                                                      |                                                         |                                              | <b>사회경제부</b><br><b>금융부</b><br><b>유통바이오부</b>                            | (02)799-2612<br>(02)799-2665<br>(02)799-2641 |                                                                                                                                                                                                                |
|                                                                                                                                                                                                                                                                                                                                                                                                                      |                                                         |                                              | <b>국제경제부</b><br><b>부동산부</b><br><b>뉴스랩부</b>                             | (02)799-6741<br>(02)799-2637<br>(02)799-2664 |                                                                                                                                                                                                                |
|                                                                                                                                                                                                                                                                                                                                                                                                                      |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이미 일어난 미래

요즘 일본에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 이민 설명회나 미국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족족 문전성시라고 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가 축소되면서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일 거다. 계속 늘어만 가는 정부 부채를 보면 10월부터 10%로 오른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앞으로 12%, 15%까지 오르는 건 시간문제라는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여기다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다 보니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30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돼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 설령 연금 제도가 없어지진 않아도 70세 혹은 75세나 되어야 받는 것이 나나는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고(故) 피터 드러커는 1964년에 쓴 ‘창조하는 경영자(Managing for Results)’에서 “우리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미 일어난 미래를 찾는 것’”이라면서 “이미 일어난 것은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드러커는 ‘찾아야 할 이미 일어난 것’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그 첫 번째로 ‘인구 구조’를 꼽았다. 그는 “인구 변화는 노동력, 시장, 사회,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이다. 이미 일어난 인구 변화는 역전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변화

###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는 빠르게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했다.

일본인들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이미 일어난 미래’ 때문일 거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이미 일어난 미래’가 있는 나라에서는 자신은 물론 후세의 미래까지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갖고 있는 자산이라도 안전한 피난처로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작년 말 일본의 한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이유로 가장 많았던 답변이 ‘절세 대책’이었고, 그 다음이 ‘자산의 달러 분산’이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인구 증가가 전망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국내총생산(GDP)도 연평균 약 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가 늘면 주택 수요가 늘고, 경제 성장은 건전한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이 기반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공실률도 낮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어 안정적인 소득

증가가 기대되고, 매각 시에는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부동산 투자가 가열되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경제 성장’이란 믿음이 배경에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이란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에 미국 소득형 투자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고령자에게 가장 절실한 건 안정적인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여가다 자본 이득과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니 안방에 앉아서도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본보다 훨씬 일찍 ‘이미 일어난 미래’를 발견했지만 속수무책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 공포를 안고 있는 일본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20년 후라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일본의 우울을 능가한다. 정부의 복지 남발과 연금 고갈 우려, 세금 폭탄, 잦은 부동산 시장 개입, 여기다 정치적 불안과 임시 지옥까지 더해지면서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 인구까지 해외로 떠밀고 있다. 해외에 생활 기반을 미리 만들어 두고 은퇴 이후의 인생 2막을 열어보자는 의욕을 정부가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투자이민협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 이민하겠다고 청원한 사례는 지난해 391건으로 2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500건이 넘을 거란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미국 투자 이민 러시, 그냥 넘길 일은

sue6870@

### 임기훈의 독설(獨說)

IT중소기업부 차장



‘탐관오리’.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부패한 관리’다. ‘지위를 악용해 백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자’쯤 되겠다. 전래동화에나 나올 직한 ‘전설’일 뿐일까. 아니다. 현대판 탐관오리는 ‘갑질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선배들의 전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최근 마치 탐관오리를 연상케 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대(對)국민 갑질’을 유감없이 목격했다. 6월 서울 양천구 신정3동의 A어린이집은 구청으로부터 일방적 폐원조치를 당했다. 폐원하겠다는 사전 설명도 없었다. 40여 명의 원아들은 느닷없이 갈 곳 없는 처지가 됐다. 10년 기한 위탁기간의 절반 만에 난 사달이다. 어린이집 부지 주인의 지속적 철거요구 탓에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처분에 절차 및 법적 하자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청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학부모들은 지적한다. 대책 없이 아이들을 길바닥으로 몰아내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만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폐원결정 석 달이 지나 주무부서인 양천구청 출

##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다

산보육과는 원아들이 이전할 시설 매입을 약속했다. 책임감에서가 아니었다. 학부모들이 김수영 양천구청장과의 면담을 강행하자 무마를 위해 급히 한 약속이다. 하지만 2개월 뒤 결국 양천구청은 ‘무대책’으로 나왔다. 이전할 시설을 사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수십억 원 예산이 확보됐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한술 더 떠 25톤 덤프트럭이 질주하는 공사장을 가로질러야 하는 인근 어린이집이라면 자리를 주선해 볼 수 있다는 비현실적 대안을 내놔다. 노력했다는 ‘공치사’를 곁들여서다. 싫으면 학부모들이 알아서 보낼 곳을 찾으라며 ‘세심한 안내’도 잊지 않았다. 기저귀 찬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했던가. 절박한 엄마들의 재면담 요청에 김수영 구청장은 “지난번에 ‘만나주지’ 않았느냐”며 문전박대했다. 양천구 유일 재산구청장인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엄마구청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관내 어디서든 본인을 ‘엄마 구청장’이라고 소개한다. 엄마들은 외면하면서 기념사진 찍는 행사에는 빠지지 않는다. 한 학부모는 “치적을 위해 ‘엄마’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사진 찍으러만 다니는 ‘트로피 구청장’”이라고 꼬집었다. 어떤 엄마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는 모정을 뒤로 하는 것은 물론 한겨울이 코앞인데 아이들을 길바닥으로 내몰 수 있는지 실로 궁금하다.

양천구가 어린이집 폐원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겪은 게 처음도 아니다. 매년 유사한 일이 터지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일방적 폐원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이전시킬 책임을 회피하는 안면몰수가 반복된다. 양천구는 매년 구립어린이집을 서울 시내 최대 수준으로 확충한다며 김수영 구청장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폐원 어린이집 수가 얼마인지는 숫자도 공개하지 않는다.

노력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변명을 심분 이해한다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아이를 맡길 곳은 생계만큼 중요한 문제다. 학부모와의 상의를 선행했어야 하는 게 첫째요. 대책 마련 뒤 저질렀어야 하는 게 둘째요. 다 못했다면 뒷감당이라도 충실해야 하는 것이 셋째다. 그게 세비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복(公僕)의 자세다. 하지만 무엇을 했는가? 한 TV드라마의 주인공이 비리공무원에게 일갈한 대사가 떠오른다. “남의 돈으로 술 먹고 밥 먹고 옷 사 입으면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shagger1207@

### 사설

## ‘한·아세안 공동비전’ 신남방정책 가속 계기로

부산 벡스코에서 25일부터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가 26일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증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대 공동번영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지역협업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지역 조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경제 동반자 관계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또 교역 및 인적 교류, 인프라와 디지털 연결 등 연계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 문화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동비전에 담았다.

정부가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제시한 이래,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간 안보·경제·사회·문화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또 이 회의에 이어 27일부터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들과의 정상회의가 따로 열린다.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아세안공동체 10개국은 총인구 6억5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2조9000억 달러(2018년)의 거대 경제권이다.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해 글로

벌 생산기지로 개발의 속도를 높이면 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

한국이 아세안과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가 30년째이고, 우리 교역과 투자의 주요 대상이다. 작년 상호 교역액은 1600억 달러로 중국에 이은 2위 규모로 커졌다. 수출만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인프라 건설 수주규모가 120억 달러로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직접투자도 61억 달러를 웃돌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우리 교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중국 편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이다. 한국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중국은 ‘사드 보복’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이 투자대상으로 메리트를 잃은 지도 오래다.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고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줄이고 있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인건비가 아직 낮은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이다. 중국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 파트너인 것이다. 한-아세안 협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세무, 특! 부동산 법인 활용한 절세, 주의점은

최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등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절감의 통로로 부각되면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며, 법인사업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을 세워 개인과 분산해 소유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 대상 부동산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법인과 분산해 보유하는 경우가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세도 법인사업자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법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라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게 되면 동일한 자산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보다 중과세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후, 해당 소득을 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개인의 소득으로 처분하는 때에 한번 더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의 처분 시기나 금액에 따른 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부담 세액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를 활용하면 다방면에서 세금 절감에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법인사업자를 잘못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을 가중하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유지와 운영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아이들은 상상합니다  
막히는 도로 위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눈이 되어주는 자동차  
청정 에너지로 환경까지 지키는 자동차



QR코드를 스캔하고 완전 자율주행  
세상의 기술을 확인해보세요

이제,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안전하게 달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이 됩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 세상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그려갑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최하는 [미래자동차 그림 공모전] 수상작



“꿀벌 로봇이 햇빛을 모아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요”  
벌집 에너지 자동차



“눈이 불편한 사람도 달리는 차에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자동차



“지구본을 누르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어요”  
월드투어 카



| 현대자동차그룹이 만들어가는 완전 자율주행 세상 |



더 안전한 세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더 효율적인 세상  
도로 위에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오롯이 자신을 위해 투자



더 깨끗한 세상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기반  
친환경 플랫폼으로 오염문제 개선



더 편리한 세상  
연령, 환경,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차량 이용

HYUNDAI  
MOTOR GROUP